metro
메트로 2014년 4월 22일

Entertainment p/18

세월호 선정적 보도 제재 착수

Sports p/20

류현진 홈경기서 4승 도전

이젠 가전도 인테리어로 승부

ECONOMY p/08

건설업계 '드림팀' 열풍분다

ECONOMY p/10

중년의 적
오십견 다스리는 법

HEALTH p/13

metro
메트로 2014년 4월 22일 화요일 www.metroseoul.co.kr

애타는 마음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엿새째인 21일 오전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한 실종자 가족이 사고해상을 향해 엎드려 얼굴을 감싼 채 슬퍼하고 있다. <관련기사 2, 3면> /연합뉴스

무능 대응 대한민국 국격 '침몰'

20년 전 서해 훼리호 참사에서도 배운 게 전혀 없어 인명 경시·안전 불감증 한국사회 치부 대서특필

세계 주요 언론 지적

"1993년 서해페리호 침몰사건 때도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국은 20년 전 사고에서 배운 게 전혀 없다."(뉴욕타임스)

"한국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여준다. 안전보다는 효율을 따지는 한국의 초고속 현대화의 한계와 취약성을 보여준 거울이다."(중국 환구시보)

세월호 참사 소식이 전 세계로 알려지면서 대한민국의 '국격'도 침몰했다.

외신들이 이번 참사에서 드러난 한국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서부터 인명 경시, 안전불감증 등 대한민국 사회의 치부를 대서특필하고 있다. 특히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만한 참사가 'IT 자동차 강국'인 한국에서만 반복되고 있다고 일제히 지적하고 나서 주요 20개국(G20) 정상 회의 개최 등으로 쌓아온 대한민국 브랜드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다는 평가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이번 참사를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재라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참사는 경주에서 젊은 학생들이 10명이나 숨진 사고 후 두 달 만에 벌어졌다"며 "한국 정부는 대형 사고로부터 교훈을 전혀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영국 BBC 방송도 한국 정부의 무능을 집중 보도했다.

BBC는 "정부의 구조 작업이 너무 느리다"며 "기다리는 시간이 가족들에게는 더없이 고통스런 시간이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발생한지 시간이 지나서야 잠수부들이 선체 안으로 진입해 시신을 수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BBC는 "실종자 가족들이 지로 다섯 시간 거리에 있는 서울로 행진해 청와대까지 가겠다고 상징적인 노여움을 표현했지만 한국 정부가 '정치적 이슈화'만 걱정하며 행진을 막았다"고 소개했다.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이번 참사가 한국의 현대화 수준을 묻는 시험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단호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고의 자원을 동원한 단단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한국은 이번 참사에서 안전행정부·대책본부·해경·해군·해양수산부가 따로따로 노는 등 국민들의 불신만 키웠다"고 강조했다.

한국정부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은 "현 정부에도 이번 참사의 책임이 있다"며 "행정 기관들도 과실에 대한 책임 여부를 확실하게 수사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사고 처리 과정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들끓고 있어 지금까지 모든 위기를 헤쳐온 박 대통령에게 큰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장에 대한 비난 쏟아져

사고 후 가장 먼저 탈출한 것으로 알려진 선장에 대한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선장이 승객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는데도 이 선장은 어겼다"며 "승객을 버려두고 먼저 탈출한 선원들의 행동이 21세기 선원문화니"고 비난했다.

홍콩 봉황위성 TV는 "사고 발생 직후 선장이 승객들에게 움직이지 말 것을 명령한 후 어떠한 추가 대피 명령도 내리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며 이것은 법률·도덕의식에 위반되는 것일 뿐 아니라 항운업계 전통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국명·조선미기자 kmi ...@metroseoul.co.kr

"눈치만 보는 공무원 퇴출"
박 대통령, "선장 처신 살인행위"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단계별로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의 선박 수입부터 면허과정, 사설개조, 안전점검과 운항허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진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단계별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밝혀내기를 바란다"고 수사당국에 주문했다.

또 "이번 사고를 접하고 현장에 내려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컸다"며 "국민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면 그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을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은 이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이 승객구조를 방기하고 홀로 대피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위"라며 "승객들은 제자리를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을 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과 초동대처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민준기자 ...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아들 때문에' 고개 숙인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몽준(사진) 의원의 막내 아들이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부적절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정 의원이 직접 사과에 나섰다.

정 의원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침몰사고의 희생자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제 아이도 반성하고 근신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라며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사과문 발표에서 3차례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정 의원의 막내 아들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슷한 사건 일어나도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다른 국가 사례랑 달리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이 가서 최대한 수색 노력하겠다는데도 소리지르고 욕하고 국무총리한테 물세례하잖아. 국민 정서 자체가 굉장히 미개한데 대통령만 신적인 존재가 돼서 국민의 모든 니즈를 충족시키길 기대하는 게 말도 안되는거지. 국민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건데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한 것 아니겠냐"라는 글을 남겨 국민의 공분을 샀다.

/조현정기자

2년 남은 수명 7년 연장

청해진해운, 세월호 담보 산은서 100억원 대출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이 노후화된 사고 선박을 수입해 몇 개월간의 개보수 과정을 거쳐 수명을 7년까지 연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청해진해운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선사는 2012년 세월호를 '건설중인 자산'으로 분류했다가 지난해 유형자산(선박)으로 대체했다.

청해진해운이 재무제표상에서 세월호를 건설중인 자산에서 유형자산으로 대체했다는 것은 세월호를 영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으로 승격시켰다는 것을 뜻한다.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면 감가상각이 시작되는데 감가상각은 해당 유형자산이 영업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예상 수명(내용연수)에 근거한다.

그런데 청해진해운은 감사보고서에서 세월호의 내용연수를 '12, 15년'으로 명시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과 산업은행에 따르면 세월호는 1994년 건조된 후 2012년 9월까지 일본 규슈 남부에서 18년 동안 운항했다.

세월호는 지난해 2월 개보수를 마친 뒤 사용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 승인받았다. 즉 애초 내용연수 20년에서 일본에서의 18년의 사용기간을 제외하고 2년에 불과했던 선박의 잔여 수명이 몇 개월간의 개보수를 통해 7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청해진해운은 또 세월호를 담보로 산업은행으로부터 선박 구입 및 개보수 자금 100억원을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안전 외면 '현장학습 사각지대'

기자 수첩

윤 다 혜
<정치사회부 기자>

대한민국에서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 등이 탄 여객선 '세월호'가 지난 16일 오전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했다. 지금도 구조작업 중이지만 계속 늘어나는 희생자수에 대한민국이 가슴 미어지고 있다.

인재가 부른 학생들의 대형 참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희생된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지난 2월 부산외대생 10명이 숨진 마우나 리조트 참사, 2000년 부산 부일외고 수학여행 중 학생 18명이 숨진 버스 연쇄 추돌 사고 등이 있었다.

학교 현장학습체험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체험학습에 대한 우려와 폐지 목소리까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기도·충북도 울산·부산교육청 등은 선박을 이용한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중지하도록 각급 학교에 요청하고, 뒤늦게 안전 점검·대책마련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교육부가 마련한 수학여행 매뉴얼은 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고, 수학여행 등 학교현장체험학습은 대규모 집단 형태로 진행돼 안전상 현실적인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집단 여행부터가 변수가 많은데 안전장치도 없이 수학여행 등을 떠나는 것은 학생들을 안전 사각지대로 몰아세우는 것과 다름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정부는 즉각 학생들의 체험활동에 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전면적 점검에 나서야 한다. 끔찍한 사건이 재연되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

오늘도 기다립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엿새째인 21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경찰 통제선 너머 바닷쪽에 앉아 기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선 무기한 연기… 정치권도 '올스톱'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엿새째를 맞은 21일 정치권도 '올스톱' 상태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고가 수습될 때까지 지방선거 경선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광역단체장 경선 일정을 이미 일주일씩 연기했지만 세월호 침몰 희생자 구조작업의 장기화가 예견되는 상황이어서 이 일정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순연된 경선 일정 중 첫 번째인 25일 대전시장 경선이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생존자 귀환을 바라며 사고가 수습될 때까지 경선 일정 및 선거 운동을 무기한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후보자 자격심사위에서 후보자들을 검증, 부적격자 명단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발표는 미루고 있다. 호남지역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장 전략공천 여부나 경선룰 등도 결정하지 못했다. 27일로 예정됐던 경기지사 경선도 기약 없이 표류 중이다.

여야의 주요 지방선거 주자들 역시 대외적인 선거운동을 모두 중단한 채 구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도 정상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24일과 29일 예정된 본회의가 열릴지도 미지수다.

/조현정기자 [illegible]

뉴스&뉴스

육·공군 참모차장 등 軍 인사

● 국방부는 21일 신임 육군 참모차장에 김유근 중장, 공군 참모차장에 정경두 소장, 공군 작전사령관에 박재복 소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김 신임 육군참모차장은 합참 작전기획부장과 제8군단장을 역임했으며 정 신임 공군 참모차장은 공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과 남부전투사령관을 역임했다.

日 "한국 동의없이 자위권행사 안 해"

● 일본이 한국의 사전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일본 측은 지난 17~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토의에서 집단자위권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전개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 사전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 풍계리 차량 증가… 핵실험 단계 아냐"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차량 증가 등의 특이 징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25~26일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이 4차 핵실험 준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1일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에서 차량이 증가하는 등 움직임이 활발해졌다"며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2월 풍계리 서쪽 갱도에서 3차 핵실험을 단행한 데 이어 남쪽 갱도 굴착도 완료해 정치적 결단만 있으면 언제든지 4차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지하 핵실험은 갱도 굴착 이후에도 지진파 탐지 등 계측장비 설치, 계측장비와 지상통제소 간 통신케이블 연결, 갱도 되메우기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또 다른 소식통은 "아직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한 단계는 아니다"며 "차량 움직임 증가도 위장 전술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미 무인잠수정 무용지물"

조류 느린 소조기 24시간 수색체제 · 사망 87명·실종자 215명

조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지는 소조기를 맞아 잠수수색인력이 24시간 대거 투입돼 수색 작업을 진행한다.

세월호 침몰 엿새째인 21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 해상에서는 전날에는 보이지 않던 노란색 선수 부분이 눈에 띄는 '머구리' 어선 4척이 자리를 잡았다.

더 넓은 해상수색을 위해 해경과 해군 함정이 사고현장에서 선박을 올리고 세월호 침몰 현장 주변에서는 수십 척의 해경 고속 단정과 해군 고무보트가 이동을 자제하고 조류 방향에 따라 시신이 떠오르는지 육안으로 관찰하고 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식당 진입로를 개척했으며 낮 12께 진입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입에 성공하면 동시다발적으로 3층과 4층 격실 내부를 집중 수색할 예정이며 원격수중탐색장비(ROV)도 동원한다고 덧붙였다. 해상 수색에는 함정 213척과 항공기 35대를 동원했다.

하지만 실종자 가족 대표단은 이날 오후 "수색 작업을 참관한 결과, 3층과 4층 격벽 유리창을 모두 깨고 용접으로 벽을 뚫어 3층과 4층에 가이드 라인(유도줄)을 연결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유속때문에 많은 시신을 인양하지는 못했다"며 "이날 새벽부터 투입된 미국 원격조종 무인잠수정의 성과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주가 소조기인 점을 감안해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 생존자나 사망자가 있다면 수습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만 29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돼 오후 10시 현재 세월호 사망자는 87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215명이다.

/송신운기자 mfun@metroseoul.co.kr

희망을 찾아라 21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 앞 세월호 사고 해상에 '머구리'라 불리는 전문 다이버들에게 공기를 공급하는 어선(뒷마라 부분 노란색)이 투입됐다. /연합뉴스

'실종자 성적 모욕' 일베회원 덜미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한 회원이 세월호 사고 실종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수차례 올렸다가 결국 신세를 질 처지에 놓였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일 세월호 사고 실종자를 모욕 비하한 글을 작성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일베' 회원 A(26)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세월호 침몰 사고로 실종된 여학생·여교사를 소재로 한 음란성 게시물을 작성해 일간 베스트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작성한 게시물 중 세월호 사고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글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컴퓨터와 포털사이트 등을 분석하고 있다. 조사 결과 추가 범행이 확인되면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윤다혜기자

민관군 잠수사들 철야 수색 해군 해난구조대(SSU)와 특수전전단(UDT/SEAL) 소속의 잠수사를 포함한 민관군 잠수사들이 21일 새벽 실종자 수색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군 제공

구조 현장서 라면 먹고 사진 찍고

정신나간! 공무원들 논란

세월호 침몰사고로 온 국민이 슬퍼하는 가운데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정신나간'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학생들을 책임지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난 18일 안산 단원고 빈소를 찾았다 논총을 받았다. 수행원이 유족들에게 "교육부 장관 오십니다"라고 귓속말을 건네자 유족들은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또 구조된 학생과 슬픔에 빠진 가족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의전용 의자에 앉아 라면을 먹는 황당한 행동을 했다.

사고대응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 송영철 국장은 세월호 참사 현장 사망자 명단 앞에서 직원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려다 실종자 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안행부는 3시간 만에 송 국장의 직위를 박탈하고 21일 해임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고 닷새째인 20일 처음으로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비난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많았다.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드디어 북한에서 선동의 입을 열었다"는 색깔론을 펼쳐 누리꾼들의 거센 질타에 직면했다.

유한식 새누리당 세종시 후보는 폭탄주 술자리에 끼었다가 당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송신운기자

'머구리' 잠수사 12명 투입

1시간 연속 물속 작업 가능

세월호 침몰 현장에 '머구리'로 불리는 잠수기수협 소속의 잠수사들이 투입됐다.

전남 여수지역 4명, 충남 보령지역 4명, 부산지역 4명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진도 해역에 투입돼 세월호 실종자 구조 작업에 동참했다.

머구리는 예전의 우주복과 형태가 비슷한 투구 형식의 장비를 갖춘 잠수사를 일컫는데 최근에는 이런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호흡장치를 입에 물고 호흡하는 방식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는 잠수사와 달리 '머구리'는 배 위에 산소공급 장치를 두고 줄을 통해 산소공급을 받는다는 점에서 일반 잠수사와 크게 다르다.

하지만 20~30m 깊이에서 일반적으로 1시간 정도 작업이 가능할 만큼 일반 잠수사보다 오랜 시간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산소공급선의 길이가 100~150m에 달해 거리 이동이 자유롭고 산소공급선이 구명줄 역할을 하는 점에서도 유리하다. 가슴 부분에 자동차 전조등과 비슷한 대형 서치라이트를 달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야 확보에서도 탁월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평상시에 오리발을 차지 않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고 현장의 거센 조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작업 효율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은기자

"DNA 확인 전에도 가족에 시신 인계"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시신을 가족에 인계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산과 진도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필요 예산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대책본부는 21일 "그동안 DNA 검사 결과가 나오고 신원확인이 돼야 사망자 인계가 가능했으나 DNA 검사 확인서가 나오기 전이라도 가족 희망에 따라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인계조치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신원확인을 위한 지정 병원 역시 현재 2곳에서 확대될 예정이다. 또 사고 발생 장소인 진도와 단원고 소재지 안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이날 중 사망자 수습 및 생존자 구조방안과 합동 안치소와 합동 분향소 설치·운영 관련 세부 장례 절차와 지원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망자의 유족들에게 장례비용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송신운기자

항해사 3명 기관장 체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항해사 3명과 기관장을 체포했다. 21일 수사본부는 1등 항해사 강모·신모씨, 2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 등 모두 4명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사본부는 유기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씨는 세월호에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교신했던 당사자다. 다른 선원도 일부 교신했지만 선장은 교신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이와 함께 다른 선원과 해운사, 선박 개조업체 관계자 등 20여 명을 소환해 개조 과정에서 구조상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등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한진기자 jhj@

일본뇌염 주의보…지역 첫 모기 확인

질병관리본부는 부산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 모기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일본뇌염 주의보는 질병관리본부의 정기적인 유행예측 사업을 통해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최초로 발견된 경우 발령된다.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하거나 매개 모기 밀도가 높은 상황 등에서는 경보가 재발령된다.

최근 10년간은 통상 4월 중순 이후 주의보가, 7월 중순 이후 경보가 발령됐다.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가정 내에서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야간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며, 불가피하게 야외활동을 할 때에는 긴옷을 입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 일본뇌염 예방 접종 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만 12세의 아동은 표준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전국 보건소는 모기의 활동이 활발한 4~10월 모기 방제를 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머무는 장소 주변의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부산지역에서는 특히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물웅덩이 등은 최대한 줄이면서 필요한 경우 모기 방제가 가능하도록 관할 보건소에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일본뇌염은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매개 모기에 물릴 경우 바이러스가 혈액 내로 전파되면서 급성 신경계 증상을 일으키는 감염병으로, 사망률이 높고 회복되더라도 합병증 발생 비율이 높은 질병이다. /연합뉴스

◆일본뇌염 예방접종 권장 기준

구분	접종 권장 기준
사백신	총 5회 접종 1~3차 [illegible] [illegible]
생백신	총 2회 접종 [illegible]

부산항 여객선 노후화 심각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여객선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산항 연안 여객선과 부산항~일본 여객선도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7개 선사가 부산~일본 4개 항로에 모두 여객선 13척(카페리 4척, 쾌속선 9척)을 운항하고 있는데 선령(船齡)이 20년 이상인 선박이 8척(61.5%)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된 선박은 미래고속 해운이 운항하는 코비V호로 1976년 2월에 건조됐다. 무려 38년이 넘은 배다. 같은 회사 쾌속선인 코비Ⅲ호도 1977년 건조돼 선령이 37년이다.

선령 20년이 넘은 다른 선박은 대부분 1980년대 후반이나 1990년대 초반 건조됐다. 이들 노후 선박의 일부는 일본에서 건조돼 10년 이상 일본에서 운항한 뒤 중고선박으로 국내에 도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선령이 적은 배는 부산~시모노세키를 운항하는 성희호로 2001년 9월 건조돼 12년이 넘었다.

부산항 연안여객선은 노후화가 더 심했다.

부산항 연안을 오가는 누리마루호(356t, 정원 278명)는 1983년 일본에서 지어져 선령이 26년이다. 부산과 제주를 오가는 카페리 2척 중 서경파라다이스호(6626t, 정원 613명)는 선령이 27년, 서경아일랜드호(5223t, 정원 880명)는 선령이 21년이다.

선령이 20년 넘고 심지어 40년 가까이 된 배가 어떻게 국제항로에 운항할 수 있을까.

20년이상 된 선박이라고 해도 선령에 따른 검사만 통과하면 여객선으로 운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선급이 발급한 '여객선 안전증서'만 있으면 선령 제한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부산항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 참사를 계기로 안전사고가 나면 대형 인명피해가 나는 여객선 선령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여객선 전반에 대한 정기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풍년 기원 첫 모내기 21일 부산 강서구 들녘에서 김경희씨가 이앙기를 이용해 자신의 논에 조생종 벼를 심고 있다. 부산지역 첫 모내기는 지난해 보다 이틀 빨랐다. /연합뉴스

4개 사업소 감사 받는다

시, 여성회관 등 내달 12일부터 지도검사…제도개선 시민 요구 접수도

부산시가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내달 12일부터 20일까지 서울본부, 여성회관, 금련산청소년수련원, 낙동강관리사업소 등 4개 사업소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21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들 사업소별 특정사무 추진성과, 예산낭비 사례, 기인 및 조직의 부조리, 민원 불편 사항 등에 대해 공개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를 통해 시는 각 사업소별 추진업무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해 원인과 해임소재를 규명하고, 시민불편사항과 예산절감방안,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을 적극 발굴해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에서는 감사대상 기관에서 추진한 업무와 관련해 위법한 업무처리 및 부조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민감사 요망사항을 접수한다.

접수기간은 4월 28일~5월 9일이다. 부산시 감사담당관실로 서면이나 전화(051-888-1417), FAX(051-888-1359), 인터넷(www.busan.go.kr)으로 접수하거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 시에는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익명이나 수사 및 재판에 관한 사항, 사생활 침해우려가 있는 사항, 타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중인 사항은 신청접수가 제외된다.

시는 신고 받은 감사요망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해 잘못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제출한 시민에게는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무사안일, 소극적 업무처리로 시민불편을 초래한 사항과 담당공무원 업무연찬 부족으로 감사시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한다. 열심히 일하는 우수 공무원은 적극 발굴해 표창할 계획이다.

한편 감사결과는 부산시 홈페이지 감사정보란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정하균기자 jhk@metroseoul.co.kr

향토 원로작가 작품전

부산지역에서 오랜 세월 활동하고 있는 원로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정리한 전시회가 21일부터 열리고 있다.

BS부산은행 갤러리는 개관 3주년 기념으로 '향토작가 조명 기획전'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부산에서 꾸준한 작품활동을 해 온 대표화가들을 선정해 연대별로 작품을 전시한다.

또 작품을 사료화하고 책자로 발간해 부산시민들에게 지역 미술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선정 전시되는 작가는 서재만, 허정도, 김종진 등 3명이다.

서재만 작가는 추상작품은 추구해왔고 초기 이후 형태적 패턴을 계승하면서도 수많은 원을 찍어 작품을 구상한다.

허정도 작가는 초반 청을파동을 빌어 민속악기, 옛사람들의 생활용기 등을 사실적인 방법으로 표현해 동양사람 특유의 감성을 표출했다. 2천년대 이후부터는 인간군상의 누드를 통해 고독과 소외문제를 다루고 있다.

김종진 작가는 자갈치시장, 부산항, 남항 일대 등 도시풍경을 거대한 색상더미로 표현하고 있다.

국내최대 물놀이시설 김해 롯데워터파크 5월 개장 (주)호텔롯데 롯데월드는 국내 최대 물놀이시설인 경남 김해 롯데워터파크가 5월말 운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롯데월드 제공

시 "성공 창업 도와드려요"

"창업에 관심이 있는 모든 시민들은 주목하세요!"

부산시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삼일간 2014년 제2회 부산시 창업강좌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창업아이템과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창업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비즈니스모델수립과 창업아이템검증 △사업계획 기본골자와 비즈니스전략 △온라인에 내 사업 무료로 홍보하기 △SNS 마케팅, 업종에 상관없다 △성공창업준비와 성공실패사례 △창업자금준비와 정부지원제도활용 등 6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중앙동 부산우체국 11층 부산창업비즈니스센터 교육장에서 진행하는 이번 교육의 모집인원은 각 과정별 선착순 100명으로 창업에 관심이 있는 모든 시민은 참가 가능하다. 교육 수료생에게는 부산시 및 정부 소상공인 지원 자금 우선 추천 자격이 부여된다.

이번 교육수강을 희망하는 시민은 4월 25일까지 부산경제진흥원으로 방문접수, 전화(1577-0062) 또는 팩스(051-600-1803), 이메일(xiurus@bepa.kr)로 신청하면 된다. /정혁균기자

<경력단절여성>

'경단녀' 취업캠프 열린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서 25일 개최…참가 희망자 모집

경력단절여성이 자신의 사례를 토대로 문제를 인식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부산시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재취업을 꿈꾸는 여성! 다시 날자' 취업캠프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행사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한미여성포럼이 주최하며, 부산시가 지정·위탁 운영하고 있는 5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이 공동 주관한다.

부산광역시·주한미대사관이 후원해 지역 내 150여 명의 취업 희망 여성들이 참여한다.

1부는 사례 중심 강연, 2부는 해결 중심 워크숍으로 진행된다.

'1부 강연'은 주한미국대사관의 후원으로 커리어컨설턴트 '캐롤 피시맨 코헨'이 방한해 미국여성의 재취업 사례와 경력단절의 재취업을 위한 7단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강연할 예정이다.

캐롤 피쉬맨 코헨은 미국 하버드 MBA 출신의 커리어컨설턴트로, Back on the Career Track (한국어 번역본 '다시 바이탈을 센다')의 저자이다.

'2부 워크숍'은 참가자들이 경력단절 문제를 인식하고 사례 중심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숍이 진행된다.

'~이 해결되면 나도 일을 할 수 있다', '~이 아니면 다도 일을 그만두지 않았었을 것이다' 등 경력단절을 주제로 해결과제를 공유한다.

참가자들은 재취업을 위한 자신의 실천계획을 돌아보고 희망하는 사회와 직장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요구를 도출하는 시간도 가진다.

특히 행사를 주최한 윤순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은 "이번 취업캠프는 사례 중심 강연과 문제 해결 워크숍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을 준비하면서 대면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취업희망 여성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혹은 가까운 여성인력개발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051)464-9882,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051)503-7266,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051)807-7944,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051)326-7600,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051)702-7196, 부산광역시 여성회관 051)610-2034,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051)320-8344, 부산여성가족개발원 051)330-3434

/정혁균 기자 hk@metroseoul.co.kr

지리산 울순 재취 한창 21일 경남 함양군 마천면 의탄리 의중마을 공철헌(65)씨가 지리산 자락의 토종 참옻나무에서 옻 순을 채취하고 있다. 4월 중에서 5월 초에 생산되는 이곳 청정지역에서 자라는 옻 순은 고소하고 특유의 향과 맛이 뛰어나 미식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함양군청 김용찬 주무관 제공

'전기차 민간보급' 경쟁률 4대 1

부산시는 대기 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업, 법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전기자동차(74대) 민간보급사업 대상자를 공모한 결과 총 300대가 신청돼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1일 밝혔다.

차종별로는 ▲RAY EV 121대 ▲SOUL EV 127대 ▲SM3 Z.E 41대 ▲SPARK EV 11대 등이다.

보급물량은 차종별 신청 비율에 따라 배분될 예정이다.

시는 공모에 참여한 대상자에 대해 2주 동안 서류 심사와 완속충전기 설치 장소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뒤 5월 8일 오후 2시 환경녹지국 회의실에서 전기차 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추첨을 통해 최종 보급대상자 74명과 예비후보자 37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전기차 구매자로 선정되면 전기차 구매보조금 2300만원(국비 1500만원, 시비 800만원)과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700만원 상당의 완속충전기 설치비를 지원받는다.

시의 한 관계자는 "최종 보급 대상자가 선정되면 5월 하순부터 완속충전기 설치를 추진해 7월까지 차례로 대상자에게 차량을 인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보개방 활성화 위해 품질향상 필요"

부발연 보고서

부산시는 정보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개정보의 품질을 향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데이터 개방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정부정책과 시스템의 적극적 활용, 우수 사례 발굴 및 전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발전연구원은 21일 BDI 포커스 '공공정보 개방과 활용 확대를 위한 과제'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공공데이터포털을 구축해 기상, 교통, 지리, 특허,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개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3.0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소통·협력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됐다. 공공정보 개방이 정부3.0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다.

부산시도 446종의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있으나 정보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오동하 연구위원은 "부산시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데이터셋을 개방하고 있으나 구·군별로 개방되는 데이터셋의 종류와 항목이 달라 데이터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해 구·군의 담당자가 참여하는 데이터 품질위원회와 같은 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산시 관련 조직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오 연구위원은 "부산시의 정보개방을 위한 추진반은 있지만 개방 데이터의 표준화와 품질에 대한 관리는 부재하다"고 지적하고 "총괄부서 책임 아래 개방되는 데이터의 표준화와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 현안문제를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해결하는 등 우수사례를 발굴해 이를 널리 전파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심야버스 노선을 선정한 서울시 사례를 참고할 만 하다"고 제언했다.

서울시는 KT의 심야시간 통화 데이터와 택시 승하차 정보를 이용해 유동인구 밀집도를 제작해 노선을 최적화하고 정류장 단위로 통행량을 추정해 배차간격을 조정했다.

오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정부3.0 실현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므로 부산시는 따로 시스템을 마련하기보다는 정부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부산국제단편영화제 25일 개막

제31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BISFF)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영화의전당,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중앙동 또따또가에 있는 모퉁이극장에서 열린다.

올해 경쟁부문 출품작은 2076편으로 역대 최다인 지난해(2225편)보다 소폭 줄었다.

출품작 가운데 경쟁작 52편(국내 14편, 해외 38편)과 초청작 63편 등 모두 128편이 관객들과 만난다.

개막식은 25일 오후 7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열린다. 조직위는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기 위해 포토월과 레드카펫 입장 등 이벤트성 행사를 자제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영화제를 치르기로 했다.

개막작은 지난해 최우수작품상 수상작인 '환상의 순간'(Ephemeral 디에고 모디노 감독)과 지난해 로카르노 영화제 단편부문 '미래의 표범상'을 받은 '리와예의 길'(알레산드로 콩코 감독) 두 편이다.

영화제는 29일 오후 7시 영화의전당 중극장에서 경쟁부문 시상식과 대상 수상작 상영으로 막을 내린다.

부대행사로 열리는 'BISFF 클래스'에는 지난해 대상 수상작 감독인 디에고 모디노와 2012년 대상 원승이 늘레키려고 닭 죽이기'를 연출한 엔스 이수르가 초청돼 관객들과 소통한다.

관객 리뷰단을 운영하는 모퉁이극장에서는 26~27일 주변국 프로그램인 스페인 특별전에 초청된 영화 24편과 부산독립영화협회 작품을 특별 상영한다.

고속도로 순찰대 추가배치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 활동

부산경찰청은 수학여행 행락철을 맞아 단체 이동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수학여행 출발지 및 행락객 집결지를 사전 파악, 휴게장에서 운전자 상대 음주 측정을 하고,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계도할 계획이다.

또 차량 정비소와 협조해 차량정비 실태 확인 후 출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력을 추가 배치, 톨게이트·휴게소 등을 집중 순찰할 방침이다. 특히 음주운전, 대열운행 등 금지 안전운전 계도 및 집중 단속을 펼친다.

market index <21일>

코스피	코스닥
1997.22 (-5.01)	569.28 (-1.86)
금리	**환율**
2.89 (+0.01)	1038.80 (+0.50)

뉴스&뉴스

KT 명퇴 8320명 KT는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특별명예퇴직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8320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명퇴 신청자들은 23일 인사위원회를 거쳐 30일 퇴직한다. /뉴시스

상장사 빚부담 소폭 감소

● 국내 기업들의 채무상환능력이 영업이익 증가와 기준금리 인하에 힘입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은 영업이익 1000원당 206원을 이자비용으로 지출했다. 이는 2012년보다 31원 줄어든 금액이다.

2013년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60조4069억원으로 전년보다 3.82% 늘어난 동시에 기준금리가 2.75%에서 2.50%로 하락하면서 이자비용(12조4839억원)이 9.29% 감소했다. /김현정기자

한국 최대 투자자는 미국인

● 지난해 한국 금융시장의 최대 투자자는 미국인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3년 말 현재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 잔액 가운데 미국의 투자액은 2744억달러로 전체의 27.7%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2613억달러)보다 131억달러 늘어난 수치다.

이어 유럽연합(EU)이 2705억달러(전체의 27.3%)로 뒤따랐다. 중국은 전년보다 45억달러 늘어난 339억달러(전체의 3.4%)를 기록했다. /김현정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회편집인 김광학
편집국장 조인호
부산지사장·직대 김명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650-2000
독자센터 02)721-9865
2002년 5월 31일 창간/일반일간 서울특별시 가00036

울산 직장인 2년 연속 연봉 1위 서울은 5위

울산 직장인들이 2년 연속 가장 많은 월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재벌닷컴과 금융감독원 전자금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713개 상장사(12월 결산법인)의 본사 기준 소재지별 직원 평균 연봉은 울산 소재 26개 기업이 6881만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현대중공업(직원 평균 임금 7232만원), 삼성정밀화학(5400만원), 경동도시가스(7699만원), 현대미포조선(6900만원), 현대하이스코(6665만원) 등의 본사가 위치한 덕분으로 분석된다.

경기가 평균 연봉 6662만원(472개사)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경북(55개사, 6396만원), 경남(77개사, 6134만원), 서울(676개사, 5855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최하위인 충북은 직원 평균 연봉이 3587만원으로 전국 평균(5959만원)의 60%에 그쳤다. /이국명기자 kmlee@

남·북 화폐 교환 비율은 어떻게?

금융권 통일 준비 분주…관련 상품도 봇물

금융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다' 발언 이후 때아닌 '통일 바람'이 불고 있다. 금융사들이 북한센터 개소를 비롯해 통일관련 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최근 여의도 본점에서 북한개발연구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북한개발 연구활동을 시작했다. 이 센터는 20여 년간의 개도국 개발지원 노하우와 남북협력기금 운용경험을 바탕으로 수은이 박근혜 정부의 통일 구상을 뒷받침하고, 북한개발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 초대 소장은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가 맡았다. 센터는 향후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와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 지원, 남북한 경제통합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제언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창립 60주년 중장기 전략에 '통일시대 준비'를 포함했다. 올해 초 조사부에 동북아·북한 관련 팀을 만들기도 했다. 특히 산업은행은 북한 인프라 구축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기택 산은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은 당시 기념식에서 "북한 경제와 산업 현황은 물론이고, 독일 통일과정에서 금융부문이 수행했던 역할을 조사·분석하고 대응전략 등을 미리 점검해 통일 후 북한지역의 산업구조조정, 인프라 투자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통일 전담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린 미국 워싱턴DC에서 "통일 문제와 관련해 중앙은행이 해야 할 역할이 크다"며 "통일과 관련한 화폐와 경제통합 문제를 연구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 후 화폐 교환 비율 등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려운 만큼 서서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사들은 통일 관련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신영자산운용은 지난달 13일부터 신영 마라톤 통일코리아 펀드를 판매, 수탁고가 100억원을 넘겼다. 지난달 30억원의 자금이 들어온 데 이어 이달 들어서는 불과 10여일 만에 9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이 상품은 통일 이후 북한이 단계적으로 개방되는 과정에서 수혜를 볼 종목 50여개를 골라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펀드다. 현재 통일펀드는 철강금속(13%), 화학업종(10%), 음식료품(9.9%) 등을 주로 담고 있다. 이 펀드는 통합의 과정에 선행해 천연자원 교역량 증가를 예상한 유통·무역주와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경제규모 성장에 따른 수혜가 전망되는 관광·보험·금융주 등의 비중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통일금융 통장과 적금·카드 등 상품을 오는 5월 중에 출시할 예정이다. 이들 상품은 소비자가 금리와 카드 포인트 중 일부를 대북지원 사업에 자동 기부하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상품 종류는 통장, 적금, 카드 등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가입대상은 개인고객, 1인 1계좌다.

하나은행도 통일 관련 상품을 만들기 위한 구상에 착수했다. 기업은행 역시 IBK경제연구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통일 후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민지기자 mini@metroseoul.co.kr

전자산업의 과거와 현재 전기의 발견부터 스마트폰까지 전자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총정리한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S/I/M)이 21일 문을 열었다. 삼성전자는 이날 삼성전자 수원디지털시티에서 권오현 부회장, 윤부근 사장, 신종균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S/I/M 개관식을 개최했다. /삼성전자 제공

행사 대신 긴급구호

금융권 세월호 돕기 동참

세월호 여객선 침몰에 따른 구조작업이 엿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금융권에서도 각종 행사를 중단하고 구호 물품을 보내는 등 사태 수습에 힘을 보태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본부봉사단과 호남남지역 봉사단 등 40여명을 파견해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 학생과 학생 보호자 등을 위한 이동세탁차, 급식차 등의 긴급구호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지역에 기반을 둔 은행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광주은행은 지난 17일 1000만원 상당의 바람막이 점퍼를 구입해 피해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여 있는 진도 실내체육관에 설치된 임시보호소에 전달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구호물품 지원이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JB전북은행도 구조인력과 봉사인력 및 실종자 가족 등 1000여명을 위한 구호물품을 보냈다.

체육 대회 등 각종 행사도 취소됐다. 우리은행 노조는 내달 말까지 예정됐던 '체육대회'를 무기한 보류했다. ING생명은 연도대상식과 가족그림소풍 행사를 전격 취소하고 1억원 성금 조성에 나섰다.

/백아란기자 ar0203@

미국·유럽 대신 중국·싱가포르로

외인 자금 손바뀜… 단기서 장기투자 움직임

국내 증시를 좌지우지하는 외국인자금이 최근 3년여새 미국·유럽 위주에서 싱가포르·중국·노르웨이 등으로 손바뀜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투자업계와 KDB대우증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2011년 6월까지 국내에 유입된 외국계 자금은 미국과 유럽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2011년 7월 이후에는 싱가포르와 중국, 노르웨이 등 국부펀드 비중이 높은 외국계 자금이 대거 들어왔다.

국부펀드는 석유·가스 등 천연자원과 관련한 펀드로 국가가 장기적 관점에서 운용하는 국가펀드를 말한다. 최근에는 외환보유액 등 비원자재를 이용해 설립된 펀드도 포함된다.

노르웨이는 석유에 기반한 국부펀드를, 싱가포르와 중국은 외환보유액 등을 토대로 한 국부펀드를 운영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손바뀜이 일어난 이유는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 자금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박승영 대우증권 연구원은 "국내 유입되는 외국계 자금이 장기투자 성격으로 바뀌면서 국내 상장사들의 순익이 줄어도 외국인 누적 순매수가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보현기자 hkim1@

은행서 노후설계 컨설팅 받는다

신한·농협·외환 베이비부머 특화 상품 눈길

올해 말 월급 통장 떠나라

오는 6월 정년을 앞둔 김정훈(59·가명)씨는 몇해 전 유행했던 광고카피를 떠올리면 덜컥 겁부터 난다.

그간 열심히 일만 해왔지 떠난 후 삶에 대한 준비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미 퇴직한 주위 친구들을 둘러봐도 별일 없이 등산을 다니거나 칩거를 해 딱한 경우 밖에 없어 막막하게 생각만하다 섬뜩 다가온 은퇴 후에 걱정이 앞선다.

최근 베이비부머(1955~63년생)들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들의 은퇴 이후의 삶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김씨의 경우처럼 노후준비를 못한 이들도 많은데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700만 베이비부머들을 중심으로 한 노후준비와 은퇴설계가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것이다.

특히 지난해 말 84조3000억원에 이르렀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올해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융권에서는 중장년층을 겨냥한 상품과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신한은행이다. 지난 1일 창립기념일을 맞아 '행복한 미래를 위한 은퇴 파트너'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은퇴 브랜드 선포식을 열었다. 신한은행은 은퇴영업을 전담할 70개 지역 거점 미래설계센터를 설치하고 은퇴 전용통장, 은퇴추천상품, 미래설계 브리프, 부부은퇴교실 등 종합 은퇴 솔루션을 대거 출시했다. 서진원 신한은행장은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적인 방식 등으로 종합적인 은퇴 솔루션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퇴직연금 도입 기업의 퇴직연금 사후관리를 위한 '알기쉬운 퇴직연금'을 발간하고, NH은퇴연구소를 통해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후설계프로그램인 'NH행복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환은행도 45세 이상 시니어고객을 위한 종합적인 고객우대 서비스인 '예의 니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예의니어 설계 시스템'은 고객 소유 주택을 은퇴자산으로 단독, 부부, 가족 설계 등 실질적인 은퇴상황을 가정한 맞춤형 노후 설계 컨설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에는 시니어 고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비금융 우대서비스로 헬스케어, 재테크 세미나, 여행상품 우대, 상조 우대 서비스 등이 함께 제공된다.

이밖에도 하나은행은 '행복디자인'이라는 브랜드 아래 시스템, 전문인력, 전용상품 그리고 비재무 서비스로 구성된 은퇴설계 종합플랫폼을 구축했다.

KB국민은행은 50~60대 은퇴 고객의 노후 설계를 위한 'KB골든라이프예금'과 함께 이 예금을 통해 노후설계를 위한 재무상담과 건강, 여가 자취인 침업에 대한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시에서도 인생 후반전을 응원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베이비부머 전용 교육기관 및 직업교육센터를 세우는 한편 암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 만 55세 때 1회에 한해 암 검진 비용도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에는 ▲교육공간 확대 ▲일자리 확충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건강·여가지원 ▲전담조직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박원순 시장은 "청소년이 교육을 통해 사회에 진출하듯이 노년층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려면 교육이 필수적"이라며 "풍부한 경험과 지식 전문성을 가진 능력 있는 50대 베이비부머들이 인생 제2막에서도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인생후반전 교육에 주력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태국산 망고 맛보세요 21일 서울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도우미들이 태국산 망고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태국산 망고(1박스)를 30일까지 도매가수준인 1만2500원에 판매한다. /뉴시스

저축은, 부실채권 11.7%로 줄듯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지난해 말 21.9%에서 2016년 말에는 11.7%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현재 영업 중인 88개 저축은행 부실채권 감축 계약을 접수받아 '부실채권 감축 세부 추진 계획 수립'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올 2월 초 저축은행에 부실채권을 조기에 감축하기 위해 감축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올해부터 2016년까지 3년동안 대손상각 및 담보물 처분 등을 통해 모두 6조3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할 계획이다. 최종 감축기한인 2016년 말 부실채권비율은 작년말 21.9% 대비 10.2%포인트 하락한 11.7%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일반 부실채권은 3조8878억원으로 담보물 처분으로 1조5209억원을 회수하고 1조868억원의 대손상각을 통해 상당부분을 정리할 계획이다.

일반 부실채권의 경우 2013년 말 부실채권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28개사 등 모든 저축은행이 2016년 말까지 10% 이하로 목표비율을 설정했다. 특히 2016년 말까지 10% 이하로 목표비율을 설정한 저축은행이 전체 88개사 중 71개사(80.7%)에 달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2조4404억원의 경우, 약 70%인 1조6561억원을 대손상각 처리한다. /백아란기자

대출해줄테니 신분증 달라고?

휴대폰 인증 사기 조심하세요

#서울에 사는 김모씨(여·40)는 지난 3월 한 캐피탈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신분증 사본과 예금통장을 보내줬다.

이후 사기범은 김 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대부업체의 '휴대전화 인증대출' 서비스를 이용해 1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가로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김씨의 경우처럼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을 받아 이를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사기범은 '대출에 필요한 거래 실적을 쌓아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예금 통장을 받은 뒤 피해자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했다.

이후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이름으로 휴대전화 인증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방식으로 금융사기를 했다.

휴대전화 인증대출은 휴대전화와 신분증·예금계좌 3개의 인증만으로 대출이 가능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에게 신속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본인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취급돼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휴대전화 인증대출'로 인한 피해발생 시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대부업체에 대한 피해구제 및 대출기록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또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엠세이퍼'에 가입해 본인 명의 통신서비스 가입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명의도용에 의한 범죄이용 등 통신료 과다발생 시 통신민원조정센터를 통해 심의 조정 요청이 가능하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10대 그룹 직원 60만명

삼성전자 10만명 최다

10대 그룹 상장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10년 만에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 91곳의 직원은 모두 61만7485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말 국내 전체 취업자 2456만2000명의 2.5%에 달하는 수치다.

직원이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전자로 9만5794명이다. 현대차(6만399명), LG전자(3만8363명), LG디스플레이(3만3643명), 기아차(3만3576명), 롯데쇼핑(2만6943명), 대한항공(1만8347명), 삼성중공업(1만3546명), LG화학(1만2617명), 삼성전기(1만2440명), 현대제철(1만663명) 등 13곳의 직원 수가 1만 명이 넘었다.

10년 동안 직원 수도 크게 늘어났다.

비교치가 있는 10대 그룹 상장사 80곳의 직원 수를 살펴보면 2003년 말 40만2683명에서 지난해 말 59만1904명으로 47% 증가했다.

삼성전자 직원은 2003년 말 5만5379명에서 지난해 말 9만5794명으로 73%나 늘었다.

LG디스플레이(2만6214명, 352.9%), 롯데쇼핑(1만9189명, 247.5%), 현대차(1만1628명, 22.6%), LG전자(1만680명, 38.6%)의 증가폭도 컸다.

근속연수는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계열사가 긴 편으로 나타났다.

/이유리기자 kyulee@

임베디드 SW 인재 모여라

산자부 1억 상금 경진 대회

산업통상자원부가 2003년부터 개최해 온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를 올해 획기적으로 확대·개편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 글로벌 인재 배출의 산실로 본격 육성한다.

이를 위해 이 대회 운영예산을 대폭 확대하고(13년 5억원 → 14년 9억원), 국제대회 격상, 수상자에 대한 인턴십 기회 및 해외연수 지원 등 참가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총상금은 1억1000만원으로 대상 수상자에게는 지난해보다 50% 증가한 300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가 소프트웨어를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의 하나로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글로벌 성장 정체, 경쟁국 추격, 신기술 부족 등 삼중고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관련 국내 유일의 경진대회다. 이 대회는 지난 11년간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국민적 관심 제고에 기여해왔다.

올해 '제12회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는 참가자 공모(4월22일~5월27일)를 거친 후 예선(5월) 및 본선심사(10월)를 거쳐 11월 18일 일산 킨텍스에서 결선대회를 개최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eswcontest.com)를 보면 된다. /유수정기자 luca@

LG전자는 최근 출시한 '꼬망스 컬렉션' 럭셔리라인 컬러 제품으로 산뜻한 느낌을 강조하여 가전을 통한 집안 분위기 변화를 꾀했다. /LG전자 제공

"이젠 가전도 인테리어"

색상·디자인 차별화 제품 출시 '눈길'

가전업계가 다채로운 색상, 톡톡 튀는 디자인으로 고객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다.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슈퍼프리미엄 가전인 셰프컬렉션 냉장고는 성능뿐 아니라 디자인에도 주력한 대표적 제품이다. 셰프컬렉션 냉장고는 섬세한 헤어 라인이 새겨진 '플래티늄 브러시드 메탈' 소재로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여기에 냉장고 문을 손가락으로 터치하면 별빛처럼 반짝이는 '스타 디스플레이'도 구동돼 프리미엄 가전의 품격을 높였다.

특히 '스타 디스플레이'는 홍보모델인 배우 전지현 마저도 극찬한 기능이다. 전지현은 셰프컬렉션 출시 기자간담회 당시 "셰프컬렉션 냉장고를 이용해보니 스타 디스플레이가 은은한 매력을 더하며 집안의 분위기도 바꾸더라"고 말한 바 있다.

삼성전자의 커브드 초고화질(UHD) TV 역시 인테리어적 요소를 가미한 대표적 가전이다. 삼성전자는 기존 평면형 UHD TV와 달리 커브드 UHD TV가 압도적인 몰입감과 생생한 화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며 마치 집에서도 영화관에 온 듯한 느낌을 준다고 설명했다.

LG전자의 '2014년형 공기청정기' 역시 디자인을 차별화한 대표적 가전제품이다. 기존 공기청정기의 디자인이 사각형 형태로 개발된 것과 달리 이번 LG전자의 공기청정기는 원형으로 차별화했다. 또한 리얼 메탈 소재에 스킨 헤어라인 공법을 적용해 깨끗한 공기 순환을 시각적으로 표현했고 깔끔함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LG전자의 '꼬망스 컬렉션'은 제품 크기는 줄이면서도 편의성을 높였다. 럭셔리 라임, 럭셔리 사안, 럭셔리 화이트 등 3종 디자인을 적용해 기존 제품 디자인과 차별화했다. 특히 상큼한 느낌을 강조한 럭셔리 라임 디자인은 패션 소품 효과는 물론 집안 분위기를 한층 돋보이게 한다.

업계 관계자는 "더이상 가전을 실생활에 유용한 전자제품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라며 "최근 가전업계가 인테리어적 요소(디자인, 컬러 등)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실제로 인테리어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해 출시되는 제품도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신화기자 lgy0402@metroseoul.co.kr

메르세데스 벤츠, 콘셉트 쿠페 SUV 공개

베이징 모터쇼 개막 ··BMW도 X4 등 선보여

2014 베이징 모터쇼가 20일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새로운 차종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이번 모터쇼에는 특히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가 비중 있는 신차와 콘셉트카를 내놔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콘셉트 쿠페 SUV는 스포티한 감각의 새로운 4도어 상시사륜구동 쿠페 SUV다. 모던 럭셔리의 정통 오프로더의 디자인을 조화시킨 것이 특징. 두드러진 라디에이터 그릴과 중앙의 크롬 루브르, 길게 펼쳐진 그린하우스와 프레임리스 사이드 윈도, B필러부터 후미까지 흐르는 듯한 루프 실루엣 등은 전형적인 메르세데스 벤츠 쿠페의 모습이다. 콘셉트 쿠페 SUV의 후면부는 뉴 S클래스 쿠페에서 처음 선보인 후미등과 입체적인 라이트 디자인이 적용됐다. 이 디자인은 향후 메르세데스 벤츠의 모든 쿠페 모델에 적용될 예정이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콘셉트 쿠페 SUV를 선보임으로써 GLA클래스와 더불어 쿠페 느낌의 SUV 세그먼트를 확장할 예정이다.

BMW 비전 퓨처 럭셔리 콘셉트는 럭셔리 세단의 미래를 담아내고 있다. 긴 휠베이스와 짧은 오버행은 세련된 역동성을 나타내고, 쿠페 스타일의 루프라인과 비스듬한 트렁크, 안정감 있는 외관의 표면과 균일하고 정교한 마무리는 효율적인 공기저항을 조절한다.

실내는 카본 소재를 적용해 경량화를 실현했다. 카본 소재로 둘러진 2개의 디스플레이. 터치 커맨드 태블릿 스크린은 통합된 유저 인터페이스를 보여준다. 이 디스플레이는 BMW 커넥티드드라이브(ConnectedDrive) 비스와 통신을 할 수 있으며 뮤직 스트리밍, 동영상, 게임 등 다양한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제공한다.

메르세데스 벤츠 콘셉트 쿠페 SUV

이 차에는 BMW 비전 헤드업 디스플레이(Vision Head Up Display)가 최초로 적용됐다. 운전자만 볼 수 있었던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달리 주행 정보가 앞 유리창 가운데에 표시되어 동승자와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뉴 X4는 X6를 잇는 새로운 스포츠 액티비티 쿠페(Sports Activity Coupe)다. X3보다 20mm 낮은 시트 포지션과 2시트 형태의 뒷좌석은 쿠페의 캐릭터를 더욱 강조하고 40:20:40 분할 접이식 뒷좌석 등받이는 효율적인 공간 활용성을 제공한다.

X4는 전장 4671mm, 전폭 1881mm, 전고 1624mm의 차체에 스포티하면서도 파워 넘치는 스타일을 갖췄다. 전면부 바깥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대형 공기 흡입구와 프런트 에이프런의 캐릭터 라인은 트윈 헤드라이트와 함께 스포티한 캐릭터를 더욱 강조한다. 운전석 위에서부터 후면까지 낮게 떨어지는 쿠페 루프라인과 BMW 특유의 측면 스웨이지 라인은 역동성과 우아함을 나타낸다.

이피션트다이내믹스(EfficientDynamics) 기술이 적용된 트윈파워 터보 엔진은 강력한 성능과 효율성을 발휘한다. X4 xDrive35i는 최고출력 306마력, 최대토크 40.8kg.m의 성능을 발휘하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5.6초에 도달한다. 3.0ℓ 직렬 6기통 엔진을 탑재한 X4 xDrive35d는 최고출력 313마력과 최대토크 64.2kg.m의 힘을 발휘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은 5.2초에 불과하다.

/장의식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VOD보고 캐릭터선물 받으세요" LG유플러스는 자사 IPTV 서비스 'U+tv G'에서 애니메이션 '넛잡', '겨울왕국' 유료소장 VOD 구매시 캐릭터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LG유플러스 제공

동아전람 '제35회 MBC건축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제35회 MBC건축박람회'가 24일부터 27일까지 일산 킨텍스(KINTEX)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동아전람 사이버 건축박람회와 병행해서 동시에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건축자재, 인테리어, 냉난방기자재, 공공시설 및 조경, 전원주택, 조명, 디지털프린팅 사인, 가구전으로 펼쳐진다.

2014년 최신 건축자재와 정보를 선보이게 될 이번 박람회는 400여 업체가 참가, 3000여 아이템이 전시된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문의)02-780-0366, 한글인터넷주소 동아전람

/박선옥기자 [illegible]

종이처럼 접는 스마트폰시대 열린다

종이처럼 접는 스마트폰 시대가 가까운 미래에 현실이 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철민·이형석 연세대 교수가 지도하고 김환기·강예진 박사과정 연구원이 주도한 국제 공동연구팀이 소자의 유연성과 변형 저항을 극대화한 차세대 폴더블(foldable) 비휘발성 유기 메모리 소자를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소자는 간단한 용액공정으로 제작가능하며 종이처럼 접을 수 있어 향후 웨어러블 컴퓨터 등 디스플레이, 통신 및 저장 장치 소자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된 폴더블 유기 메모리 소자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그동안 고분자를 이용한 휘어지는 메모리는 여러 차례 개발됐지만 휘어지는 정도가 수 밀리미터(mm) 수준이었다. 조금 변형됐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탄성변형의 형태로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는 차세대 웨어러블 전자 소자에 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연구팀은 강유전체 고분자 물질을 이용해 휘어질 뿐만 아니라 종이처럼 접은 상태에서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폴더블 비휘발성 유기 메모리 소자를 개발했다. 강유전체는 외부 전기장이 가해지지 않아도 전기양극이 생기는 '분극'을 유지하는 물질이다.

연구팀은 "이번 메모리 소자는 간단한 용액공정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구현된 소자는 1000회의 접힘에도 불구하고 메모리로서 안정적인 전기적 특성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 이 기술을 실용화하기까지는 약 5년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혜민기자 [illegible]

"제대로 짓자" 건설업계 '드림팀' 열풍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문업체 협업 시너지 '쑥쑥'

건설업 각 분야에서 명성을 쌓은 업체들 간 협업 '드림팀'을 꾸려 아파트를 짓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에도 대형건설사가 컨소시엄을 형성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수주한 뒤 분양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공동시공이라는 의미 외는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에 최근에는 세계적인 건축사무소, 인테리어 디자이너 등이 모여 설계부터 시공까지 합심하는 등 한 발 더 나아간 모습을 보이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일대 지어지는 분양형 호텔 'JS오션블루'는 해안종합건축사무소가 설계를 맡았다. 해안은 영국 건축전문지인 '빌딩디자인'이 1400여 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전 세계 건축 전문회사 순위에서 29위를 차지한 업체다. 여기에 실내건축공사 전국 4위의 다원디자인이 인테리어를 책임진다.

중흥건설은 희림건축과 손을 잡고 세종시 '중흥S-클래스 리버뷰2차'를 공급한다. 희림은 2013 싱가폴 BIM국제경기대회에서 1위를 수상하며 글로벌 무대에서도 실력을 인정받는 업체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프로젝트 등에 참여했다. 작년 분양한 리버뷰1차 역시 희림건축이 설계로 참여해 조기 완판을 기록한 바 있다.

내달 김포 풍무동에서 입주하는 '한화꿈에그린월드 유로메트로'는 시공능력순위 10위의 한화건설이 짓고, 세계적인 건축가 바세니안 라고니(Bassenian Lagoni)가 디자인을 담당했다. 바세니안 라고니는 미국과 이탈리아, 영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인도 등에서 해외 부호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의 고급 건축물을 담당해 온 주택 전문회사다.

오는 6월부터 분양 예정인 세종시 2-2생활권에 물량도 주목할 만하다. 이곳은 건축법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대폭 완화, 통합하는 제도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창의적인 건축물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을 목적으로 지정한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작년 설계를 공모했다.

사진: 시공능력순위 10위의 한화건설이 짓고, 세계적인 건축가 바세니안 라고니(Bassenian Lagoni)가 디자인을 담당한 '한화꿈에그린월드 유로메트로' 전경.

그 결과 롯데건설 신동아건설(설계 나우동인건축 등), 포스코건설, 현대건설(설계 디에이 등), 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계룡건설산업(설계 토문 등), 금성백조주택(설계 에이앤유디자인 등)이 선정됐다. 2-2생활권 11개 필지에는 2016년 말까지 7490가구의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수요자들이 시공사와 브랜드에 중점을 두고 분양을 받았지만 점점 품질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단지 구조, 평면, 인테리어 등 '제대로 짓는' 아파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공급에서 수요 위주 시장으로 바뀐 이상 건설사들도 이러한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u@metroseoul.co.kr

전월세 거래 3.6% 늘어

주택 증가폭 아파트보다 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1일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2014년 3월 전월세 거래 동향(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전월세 거래 집계) 및 실거래가 자료를 발표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전월세거래량은 전국 14만2289건으로 전년동월대비 3.6% 증가했고, 전월대비로는 1.5% 감소했다.

전월세 거래는 2013년 4분기 이후 매매거래 증가에 힘입어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4년 2~3월은 계절적 수요(신학기) 영향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동월비 3월 거래량이 증가(3.6%)한 것은 월세거래의 증가(10.7%)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전세거래는 전년동월비 1.2% 감소)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9만4201건이 거래되어 전년동월대비 3.2% 증가했고, 지방은 4만8088건으로 전년동월대비 4.3% 증가했다. 서울은 전년동월대비 0.9% 증가, 강남 3구는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동월대비 1.3% 증가(6만1662건)했고, 아파트 외 주택은 5.4% 증가해(8만627건) 비아파트 주택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 유형별로는 전체주택은 전세 57.1%(8만1200건), 월세 42.9%(6만1089건), 아파트는 전세 65.2%(4만188건), 월세 34.8%(2만1474건)로 나타났다.

한편, 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rt.molit.go.kr) 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두탁기자 kimdt@

<전월세 거래량 추이 (월별)>

"갈매 더샵 나인힐스가 궁금해요" 포스코건설이 구리갈매지구 첫 민간분양 아파트 '갈매 더샵 나인힐스' 모델하우스 오픈을 앞두고 개최한 사전설명회에 약 500명의 고객이 참석했다. /포스코건설 제공

주말에만 2만8000명 '북적'

대우건설 견본주택 '대박'

대우건설이 지난 주말 오픈한 3개 사업장의 모델하우스에 총 2만8000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대우건설(대표 박영식)은 18일 문을 연 충주2차 푸르지오, 동대문 푸르지오 시티, 마곡역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 모델하우스에 20일까지 3일간 각각 1만2000여 명, 7000여 명, 9000여 명이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충주2차 푸르지오는 총 825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전용면적 85㎡ 이하로만 구성돼 인기를 끌었다. 특히 충주 중심가로 떠오르고 있는 신연수지구 생활권에 위치했고, 지역 내 선호도가 높은 국원초등학교가 가깝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23일 1순위, 24일 3순위 청약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30일, 계약은 5월 7일부터 9일까지다. 입주예정일은 2016년 10월이다.

아에, 동대문 푸르지오 시티와 마곡역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는 임대시장 선진화방안 발표 이후 오피스텔 투자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집중됐다. 두 단지 모두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주변 임대수요가 풍부한 편이다.

동대문 푸르지오 시티는 전용면적 23㎡ 단일 타입의 오피스텔 525실과 19~36㎡ 도시형생활주택 299가구로 구성돼 있다. 마곡역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는 22~39㎡의 오피스텔 510실로 이뤄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3개 단지 모두 지역 내에서 공급이 부족해 수요층이 충분하며 각각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특장점을 보유한 사업장"이라며 "분양에 성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아직도 글만? 사진 뜨는 SNS 인기

핀터레스트 인스타그램 등 비주얼 승부
토종 카카오스토리도 사진 동영상 강화

스마트기기 대중화로 SNS를 쓰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는 세상이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SNS를 활용하면서 SNS도 진화하고 있다.

문자와 같은 텍스트 기반의 SNS에서 음악이나 동영상 콘텐츠에 기반한 브랜드까지 다양한 유형이 등장하고 있고 특히 뛰어난 비주얼 기반의 SNS가 각광받고 있다.

대표적인 플랫폼이 '핀터레스트'다. 올해 1월 한국어 서비스를 런칭한 핀터레스트는 단순한 이미지 공유 차원을 넘어서 특정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가장 쉽게 발견하고 정리할 수 있는 매체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사용자들은 다양한 보드에 관심을 갖는 것들을 '핀(관심있는 사진을 저장)'함으로써 위시리스트를 만들고 여행을 계획하고 행사를 준비하며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다.

나아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다른 '피너'들을 팔로우해 일상에 도움이 되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한마디로 '맞춤형 비주얼 정보 창고'를 보유할 수 있게 해 준다.

전세계 핀터레스트의 월 실사용자수는 지난 3월 기준 5300만명. 국내에서는 현재 현대백화점, 도미노피자 등이 핀터레스트 계정과 보드를 활용해 비주얼 프로모션을 강화하고 있다. 이 추세라면 국내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핀터레스트와 유사한 전략을 펼치는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페이스북도 비주얼을 강조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이미지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사용자들은 다양한 필터를 적용한 감각적인 사진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타 SNS에 공유할 수 있어 전 세계 유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지난 3월 기준 가입자수 2억 명을 돌파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출시 3년 반 만에 이뤄 낸 성과다. 페이스북이 5년 만에, 트위터가 6년 이상 걸려 이룬 것을 보면 괄목할 성과다.

트위터는 지난해 6초 분량의 동영상을 제공하는 '바인'을 인수해 새로운 먹거리를 개척하고 있다. 할리우드 스타 존 트라볼타 등은 바인을 기반으로 팬과 소통하고 있다.

국내의 카카오톡도 '비주얼 행보'에 동참하고 있다. 사진과 동영상을 매개로 하는 '카카오스토리'를 성공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올해 초 '내스토리 타임뷰 모아보기', '시간순 리스트 뷰' 추가, '소식' 페이지에서 바로 피드백 추가 및 멀티미디어 재생 가능 지원 등 비주얼 기반 SNS로서의 특징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핀터레스트의 여행 테마 사진. 잡지에서 볼 수 있는 사진을 손쉽게 검색·저장할 수 있다. /핀터레스트 제공

트위터의 바인으로 동영상을 확인하는 모습 /바인 블로그

꼼꼼IT리뷰 – 자브라 레보 와이어리스

북유럽 디자인에 명품 음향

뱅앤올룹슨의 고향 덴마크에는 또 다른 유명 오디오 브랜드가 있다. 140년 역사를 지닌 자브라.

이 회사는 무선 오디오 기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어폰이나 헤드폰도 선이 없는 블루투스 제품을 주로 만든다.

자브라의 '레보 와이어리스'는 전 라인업을 통틀어 가장 유명한 제품이다. 디자인, 성능, 가격 등에서 만족할 만한 가치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뱅앤올룹슨과 함께 커왔기 때문일까. 북유럽 특유의 간결하면서도 럭셔리한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리뷰 제품으로 쓴 '골드' 버전의 경우 블랙톤을 배합으로 하면서 이어패드와 헤어밴드가 만나는 지점에 금빛 포인트를 주는 신의 한 수를 뒀다.

편안한 착용감을 위해 패드 처리된 헤드밴드와 메모리폼 이어컵, 부드러운 폴리시렌을 사용했고 알루미늄 프레임, 강철 힌지, 꼬임 및 단선 방지 케이블 등을 사용해 내구성을 높였다.

헤드폰의 본질인 음향 성능도 기대 이상이다. 돌비 디지털 플러스가 탑재된 자브라 사운드 앱의 덕이 크다. 가격(34만9000원)대를 감안했을 때 10만 원 이상 비싼 제품과 견줘도 손색이 없다.

다만 유선으로 음악을 들을 때와 블루투스로 감상할 때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음질 자체가 떨어지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무선 연결 시 전체적으로 음향의 크기나 디테일한 소리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요즘에는 블루투스 기술이 좋아져 유선 대비 90% 수준의 성능을 발휘한다고 하는데 자브라의 경우 이 부분을 좀 더 체크해야 할 것 같다.

/박성훈기자

'타요 버스' 탑승하세요 KT의 IPTV서비스 올레tv가 '꼬마버스 타요' 시즌3을 유료방송 서비스 중 독점으로 서비스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즌 상 편(각 13편)을 일괄 결제하면 정기보다 50% 저렴하게 볼 수 있다. /KT 제공

자동차 보안 사고 연간 24조 피해

산업연 '사물인터넷 해킹' 경고… GDP 1% 손실

#사례-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퇴근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다. 그런데 A씨가 다가가기도 전에 주차 브레이크도 풀리며 자동차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좁은 골목길도 능숙히 빠져나간 자동차는 대로에 들어서자 시속 120km가 넘는 속도로 사라졌다.

해킹으로 인한 이같은 피해가 천문학적으로 커질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자동차는 물론이고 스마트TV, 냉장고, 세탁기 등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이 해커들의 새로운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1일 산업연구원은 '사물인터넷 시대의 안전망, 융합보안산업' 보고서를 통해 국내 융합보안 피해가 GDP의 1% 규모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융합보안 피해규모는 2015년 13조4000억원에서 2020년에는 17조7000억원, 2030년 26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국가 신용도 하락, 2차 피해 등을 고려하면 피해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융합보안사고 산업별 피해에도 엄청날 전망이다. 스마트카의 경우 보안사고가 발생해 국산 자동차의 외관 수요가 10% 감소하면 연간 24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스마트폰 피해액은 무선통신단말기 5조3000억원, 전기전자 4조1600억원, 부동산 서비스 2조1000억원 등을 합치면 약 16조원에 달한다.

황원식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보안공격으로 금융산업이 1%의 지장을 받으면 금융산업은 총 1조7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고 전산업에 미치는 간접피해는 6000억원 이상"이라며 "국가 차원의 복합적인 보안 사고에 대비해 다음기관을 하나로 통합하고 IT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융합보안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국현기자 lomlee@

중년 '공공의 적' 오십견 이겨내자

참지말고 초기에 전문 병원 찾으면 완치 가능

나이가 들면 쑤시고 아픈 곳이 한두 군데 생기게 마련이다. 하지만 늙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노화로 생기는 통증을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오십견'도 그런 질환 중 하나다.

◆50대에 많이 나타나는 '오십견'

어깨 질환은 종류가 다양하지만 밤잠을 설칠 정도의 극심한 통증의 대부분은 오십견이다.

보통 50대에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 오십견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질환이다. 단순 근육통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이가 있지만 오십견은 관절에 이상이 생겨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관절이 서로 들러붙고 관절 속까지 퍼지기도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 통증이 심해지면서 관절 속은 물론 관절낭(관절이 들어있는 주머니 모양의 조직)과 회전근개가 들러붙는 유착이 발생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단순 근육통으로 오인하기 쉬지만 오십견은 무겁고 뻐근한 증상으로 시작돼 쑤시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바람만 스쳐도 아플 정도의 고통이 생기기도 한다.

더욱이 밤이면 통증이 더욱 심해져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이도 많다. 단순 어깨 결림이나 목 디스크로 인한 통증은 누우면 사라지지만 오십견은 누웠을 때 관절이 압박을 받아 통증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팔 동작에 제한이 생기면서 옷을 입고 벗거나 식사와 같은 일상생활이 불편해져 삶의 질이 떨어지고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조기에 적극 치료 필요해

오십견의 발병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로 어깨관절 주위 연부 조직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게다가 어깨관절 부상이나 무리한 어깨 사용, 심한 스트레스, 당뇨병, 목 디스크 등이 있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여성의 발병률이 남성보다 2배 정도 높은데 이는 반복적인 가사노동과 폐경으로 인한 여성 호르몬 감소에 따른 것이다.

이런 오십견도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처음에는 약물요법과 물리치료를 병행하면서 운동요법을 시행하게 되는데 체외충격파와 같이 강한 충격파로 손상된 조직을 사극해 치유를 도모하는 보존적 치료도 도움이 된다.

만약 이런 방법을 통해 통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관절내시경 시술을 시도할 수 있다. 전신마취가 아닌 부분마취를 한 후 수 ㎜ 정도의 관절내시경을 삽입해 환부 부위를 정확하게 치료하는 방법으로 흉터가 거의 없고 회복 기간도 짧다는 특징이 있다.

서파수 웰튼병원 소장은 "오십견은 보존적 요법과 시술만으로도 충분히 완치가 가능해 조기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며 "오십견이 심한 환자들에게 시행되는 관절내시경 시술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지만 질환 부위를 정확하게 짚어 치료해야 하므로 전문 병원과 경험 많은 의료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러브 패밀리 선포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최근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대한내과의사회와 함께 윤규민 건강 캠페인 '러브 패밀리'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캠페인은 가족을 중심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의사회는 'LOVE'로 정리한 4가지 건강 수칙을 발표했다. 또 의사회는 홍보대사로 가수 겸 방송인 김학래씨와 아이돌 그룹 레인보우의 김재경씨를 임명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제공

의료와 뷰티가 한 자리에

25일부터 '메디뷰 엑스포' 열려

서울산업진흥원(대표 이진영)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2014 메디뷰 엑스포'를 개최한다.

엑스포는 메디컬과 뷰티, 그리고 문화 콘텐츠가 결합된 신개념 엑스포로 의료·뷰티산업의 트렌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다.

전시관은 ▲메디컬관 ▲뷰티관 ▲이벤트관으로 구성되며 메디컬관에는 국내 유명 병원과 의료기기 업체들이 참가해 의료 시술 및 제품 구매 상담을 진행한다.

또 뷰티관에서는 화장품, 피부·네일·바디케어 제품, 헤어제품 등 다양한 뷰티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전시회 기간 중에는 성형외과, 안과 등 전문 병원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벤트관에는 K-팝 콘서트, 서울인터내셔널 뷰티 콘테스트, 웨딩 헤어&메이크업 트렌드쇼 등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가 마련된다.

한편 이번 전시회와 동시에 열리는 '제11회 동양 국제 미용외과 학술대회'는 한·중·일 3개국이 순회 개최하는 행사로 미용외과 부문 신기술 발표 및 라이브 수술 중계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황재용기자

중년 장 건강, '더블 생균'으로 지켜라

장 내 유익균 70% 이상일 때 '건강'

나이가 들수록 장 내 유익균이 줄어들고 유해균이 늘어나 불규칙한 변동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장이 건강한 성인의 경우 바나나 모양의 황갈색 변을 보는 것이 정상인데 묽은 변을 자주 보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등 불편한 증상이 이어진다면 대장 건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장 건강 위해서는 유해균 줄여야

무균 상태인 갓난아기 때의 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유익균과 유해균이 공존하게 된다. 하지만 스트레스, 자극적인 음식, 음주 및 흡연 등으로 중·장년기의 장에는 유해 세균이 급증한다. 이렇게 늘어난 유해균이 장내 부패와 발암물질 및 가스를 유발해 설사와 변비, 대장암 등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런 장을 다시 튼튼하게 하고 정상적인 배변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내장 내 유익균의 비율을 70%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불규칙한 식습관과 영양소 섭취의 불균형으로 장 건강을 챙기는 것이 쉽지는 않다.

이에 장 내 유해균을 줄이고 유익균을 증식시켜 장의 기능이 정상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생균 함유 정장제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한국코와의 '더가드코와 정장정'이 있다.

이 제품은 낫토균과 유산균(락토민)의 더블 생균이 함유됐다. 단백질을 분해해 암모니아 등의 유해물질을 생성하는 유해균, 특히 중·장년층에서 급증하는 웰슈균을 저하시키고, 유익균인 비피더스균의 증식을 돕는 역할을 한다. 또 묽은 변·변비, 소화불량 등에 효과적이며 장의 세균 밸런스를 정상으로 맞춰 설사 증상을 완화시키고 딱딱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

/황재용기자

LG생명과학, '솔루션-K' 특별 판매 방송

LG생명과학이 오는 22일 NS홈쇼핑을 통해 혈관 질환 관리를 도와주는 건강기능식품 '솔루션-K'를 특별 판매한다.

솔루션-K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는 모나콜린K 성분과 혈행 관리와 혈중 중성지질 개선 소재인 오메가3가 들어있는 제품이다.

회사는 디가오는 가정의 달을 맞아 고객에게 부담 없는 가격으로 혈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방송을 마련했으며 방송은 오후 6시30분부터 60분간 진행된다.

이날 방송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12개월분을 19만8000원에 구입할 수 있으며 자동주문 시 1만원, 일시불 구매 시 1만원 추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솔루션-K 공식 온라인몰인 리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재용기자

봄철 식중독 예방 '주방부터'

항균 세제 구매시 '국가 공인' 여부 확인을

연일 기온이 상승하면서 주방 위생에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평균 식중독 환자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09~2013년) 전체 식중독 환자 6261명 중 38%가 4~6월에 집중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인 7~9월에는 31%의 환자가 발생해 오히려 봄철보다 적었다. 특히 봄은 황사로 인한 오염으로 식중독 위험이 높아 가정위생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주방은 평소 외부로 이어지는 현관과 가깝고 가족의 출입이 잦아 유해 물질과 세균 오염에 특히 취약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 시기에는 입에 직접 닿는 식기 및 주방용품을 평소보다 더욱 청결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식중독균 등 각종 세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음식을 만드는 재료 역시 황사 오염에 노출되어 있어 식기는 물론 과일·채소까지 동시에 세척할 수 있는 항균 주방세제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애경 관계자는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주방세제가 항균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항균, 제균 등의 단어를 패키지에 명시한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 시 국가공인 항균마크 유무를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주방을 청소할 때는 황사철엔 아무리 조심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와 세균이 실내에 들어오기 마련이므로 주방전용 세정제 등 활용해 꼼꼼하게 청소하는 것이 좋다.

주방 배수구 속 음식 찌꺼기는 악취 발생뿐 아니라 온종일 물에 젖어 있어 세균이 번식하기 쉽다. 수시로 음식물 찌꺼기를 비우고 솔을 이용해 이물질을 없앤 후 햇볕에 말려주는 것이 가장 좋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배수구 거름망에 전용세제를 뿌리면 효과가 배가 된다.

음식을 조리하는 주 도구인 가스레인지 역시 청소하지 않고 그냥 남겨두면 곰팡이와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어 자주 청소해야 한다. /정혜인기자

하우스웨딩N, 나만의 스타일로 만드는 웨딩

여유로운 예식 시간 보장
돌잔치 전문 '파티N' 실시

천편일률적인 결혼식에서 탈피해 나만의 스타일로, 내가 꾸미는 특별한 결혼식을 원한다면 대전시 둔산동에 위치한 '하우스웨딩N'(대표 이진환)에 주목해보자. 하우스웨딩N은 기존 찍어내듯 천편일률적인 결혼식과는 차별화된 웨딩으로 예비 신혼부부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하우스웨딩N은 우선 예식시간이 자유롭다. 시간에 쫓겨 20~30분 만에 진행되는 다른 예식과 달리 예식 자체 시간만 1~2시간으로 여유 있게 가족, 친지가 함께하는 결혼식을 할 수 있다.

또 하우스웨딩N을 이용한 신혼부부 상당수가 주례 없는 결혼식을 선택했다. 대신 사랑의 편지, 성혼선언문 낭독 등 신랑·신부가 주제가 되는 이벤트를 통해 그들만의 추억을 만들어가길 원했다.

한편 하우스웨딩N은 최근 돌잔치 전문점 '파티N'(cafe.naver.com/dolpartyn)도 열었다.

파티N에서는 돌잔치 뿐 아니라 베이비샤워, 웨딩과 연계된 프로포즈 이벤트, 친목 모임을 위한 스탠딩 파티 등 다양한 파티와 이벤트를 열 수 있다.

품격 있는 시설과 서비스로 블로그와 입소문을 통해 알려지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 업계 측의 설명이다.

특히 국내 최정상급의 셰프와 파티플래너를 영입해 대전 지역 파티 문화의 개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업체 측은 덧붙였다.

주소: 대전시 서구 둔산동 1413~1414 파이낸스빌딩 17층. 문의: 하우스웨딩N 042)488-3100

/유혜진기자 hjlumi0404@metroseoul.co.kr

패션·환경 공존 '에코패션' 눈길

친환경 공법·버려진 자원 재활용 등 노력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친환경 패션 브랜드들의 '에코 패션'이 주목받고 있다. '에코 패션은 촌스럽다'는 생각은 과거의 이야기일 뿐, 최근에는 친환경 공법과 세련된 디자인을 적용해 누구나 입고, 즐길 수 있는 친환경 패션으로 거듭나고 있다.

친환경 제품으로 청바지 브랜드 리바이스의 워터리스 진과 웨이스트리스 진(사진)이 대표적이다. 워터리스 진은 청바지를 만들 때 사용되는 물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인 친환경 공법을 쓴다.

이 브랜드는 워터리스 공법을 통해 2014년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7억7000만 ℓ의 물을 절약했다고 전했다. 이는 81만 명의 사람이 1년 동안 마실 수 있는 양이다.

이와 함께 웨이스트리스 진은 재활용 천과 플라스틱 페트병에서 뽑아낸 플라스틱 폴리에스터 섬유를 이용해 만든 청바지다. 이 청바지는 페트병의 갈색과 녹색이 은은하게 청바지에 배어 멋스러움을 더한 패션 아이템으로 꾸준히 사랑 받고 있는 게 업계 측의 설명이다.

H&M의 컨셔스 컬렉션은 유기농 면과 재활용 플라스틱 병, 텐셀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매년 새로운 라인을 선보이고 있다. 이 브랜드는 올해 미국 유력 모델 앰버 발레타를 모델로 발탁하고 전 세계 150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을 통해 컨셔스 컬렉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코오롱 FnC의 브랜드 래코드는 군용텐트와 낙하산으로 만든 밀리터리 라인과 에어백으로 만든 인더스트리얼 라인 등 독특한 콘셉트와 소재로 주목 받고 있다.

남·여성복 라인에 데님 소재를 적용하고 버려지는 원단 조각과 데님바지의 부위별 디테일을 살려 액세서리와 생활소품까지 영역을 확장해 에코 패션의 가능성을 열어 나갈 계획이라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김희정기자 [illegible]

네슬레 퓨리나, 체험단 모집

내달 19일까지 1000명 규모

반려동물 식품 전문회사 네슬레 퓨리나는 펫푸드 브랜드 '퓨리나 원'에서 다음달 19일까지 '퓨리나 원과 함께하는 나와 내 반려견을 위한 30일 동안의 건강한 변화' 캠페인의 체험단을 모집한다.

이번 캠페인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반려견 건강 체험 글로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내에서는 2007년부터 시작돼 올해 5회째를 맞이한다.

체험단은 총 1000명을 모집하며 체험단에 선정되면 반려견 견종 및 나이, 몸무게·건강 상태 등에 따라 적합한 퓨리나 원 제품 30일분을 무료로 받게 된다.

또 반려견과 함께하는 요가인 도가(doga-dog yoga) 트레이너 노나미 수의사와 함께 도가 방법과 반려견 식습관 관리법, 반려견 자가 건강 체크표 등의 다양한 정보를 캠페인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네슬레 퓨리나는 매주 제공되는 다양한 미션 수행 결과에 따라 우수 참가자들에게 반려견과의 1박 2일 여행 숙박권, 강아지 요가 수업 체험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체험단 신청은 다음달 19일까지 가능하며 캠페인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혜인기자

다이소, 28일까지 '버킷리스트 톱3' 기획전

생활용품숍 다이소는 온라인 쇼핑몰 다이소몰에서 오는 28일까지 '버킷리스트 톱3' 기획전을 실시한다. 다이소몰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여행용품, 나들이용품, 캠핑용품을 최대 68%까지 할인 판매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캐리어·수면용품·파우치·목베개·도시락 박스·캠핑텐트·미니해먹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식·음료업계, '스낵 컬처' 마케팅 화제

재미·공감 담은 짧은 영상으로 소비자 유혹

스마트기기의 이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스낵컬처'가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 주목 받으면서 식·음료업계도 이를 활용한 마케팅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스낵컬처(Snack Culture)란 과자를 먹듯 짧은 시간에 문화 콘텐츠를 소비한다는 의미의 신조어이다.

실제로 현대약품의 비타민 음료 브랜드 '프링클'은 최근 '젊음은 직진'이라는 브랜드 콘셉트를 반영한 '범군의 영상'을 선보여 주목 받았다.

3분33초 길이의 이 짧은 영상은 한 여학생이 약 22km를 걸어 군복무 중인 남자친구를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리얼 무비 콘셉트로 제작됐다. 지난달 12일에 공개된 후 빠르게 확산돼 총 38개의 페이스북 인기 페이지에서 소개됐다. 유저 사이에 6000건 이상의 공유와 10만 건의 '좋아요'를 기록하기도 했다.

롯데리아가 진행한 만우절 이벤트 현장을 담은 영상도 주목을 받았다.

해외 유명 영화 캐릭터 가면을 착용해 롯데리아의 만우절 이벤트에 참가한 한 참가자의 당시 참가 내용을 담은 31초짜리 영상은 30만 건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또 지난 2월 유튜브를 통해 한 영국인 남성이 친구들과 함께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맛 본 반응을 촬영한 4분 분량의 영상인 '영국남자 불닭볶음면 도전'은 조회 수 160만 뷰를 기록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다.

프링클 범군의 콘텐츠

죠스떡볶이도 지난해 SNS 시트콤 '떡끈한 인생'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죠스떡볶이 매장에서 일어날 법한 다양한 일화들을 5분 내외의 가벼운 시트콤으로 제작했다. 죠스떡볶이는 시트콤 공개 이후 공식 페이스북 팬 수가 약 56% 상승하는 효과를 봤다.

/현대약품 제공

/정희원기자 jemu@metroseoul.co.kr

고객 성원 감사 행사 홈플러스 온라인쇼핑몰은 21일부터 인터넷쇼핑몰 창립 12주년을 맞아 신규 가입 고객 대상 15만원 상당 장바구니 쿠폰과 무료 배송쿠폰 제공, 신용카드 무이자 등의 고객 성원 감사 행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제공

외식업계에 부는 '0.3초의 법칙'

이색 매장 분위기로 고객 눈길 사로 잡기

고객이 구매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인 흥미유발에 소요되는 시간은 단 0.3초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 짧은 시간에 관심을 끌 수 있는 시각적인 차별화가 고객 유치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

유통업계에서는 "분위기를 구매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장 분위기나 인테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들이 많아진 만큼 인테리어에 많은 신경을 쓴다.

'구이앤캠프'(위 사진)는 진짜 캠핑장을 옮겨놓은 것 같은 인테리어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매장 곳곳에 캠핑장에서 볼 수 있는 커다란 타프(천막)가 세워져 있고 천막에선 끊임없이 물이 떨어져 마치 비오는 날 캠핑의 낭만을 느끼게 한다.

은은한 밴딩 조명과 함께 천막을 타고 흐르는 물소리가 운치를 더해준다.

'트래블앤쿡'은 맛있는 여행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인테리어 콘셉트로 낭만적인 여행을 꿈꾸는 여성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공간을 연출했다.

아기자기한 소품과 캐주얼한 컬러의 가구, 빈티지한 패턴의 조명으로 시각적인 차별화를 주었으며 매장 외관을 컨테이너 박스처럼 제작해 재미와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

공장을 연상시키는 레스토랑 바비큐 구이가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철든놈'(아래)도 새로움을 찾는 젊은 세대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다.

철든놈에 들어서면 이곳이 공장인지 식당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리송해진다. 마치 철공소에 와있는 느낌을 받게 한다. 인쇄공장으로 운영되던 곳을 창업자들이 손수 개조해 개성이 넘치는 공간으로 창조해냈다. /정영일기자

패션, '청순 아이템'이 섹시함을 압도

블라우스 플랫슈즈, 시스루 미니스커트 눌러

아이돌 그룹의 섹시 콘셉트에 피로감을 느낀 것일까, 들쭉날쭉한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일까. 시스루 및 미니스커트 등의 섹시 아이템보다 블라우스, 스키니 팬츠 등의 청순함을 강조한 아이템이 인기다.

패션 전문 쇼핑몰 아이스타일24(김기보)가 지난 1월부터 15일까지 시스루룩·미니스커트·쇼트 팬츠의 판매율과 청순함을 대표하는 블라우스·스키니 팬츠·플랫슈즈 등의 판매율을 분석했다. 이 결과 쉬폰 블라우스가 61%, 스키니 팬츠 122%, 플랫슈즈는 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스루룩·미니스커트·쇼트 팬츠의 매출은 각각 31%·15%·23% 올라 청순 아이템보다 오름세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순·발랄함을 드러내는 아이템으로 플랫슈즈가 눈에 띈다. 이 쇼핑몰은 실제 올해 4월 들어 해당 제품 판매율이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다고 전했다. 플랫슈즈는 활동성과 여성성을 강조한 아이템으로 소녀다운 발랄함과 함께 발목이 가늘어 보이는 효과를 줘 청순 발랄한 이미지 연출을 돕는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최인정 아이스타일24 여성의류 담당 상품기획자(MD)는 "최근 섹시한 이미지에 피로감을 느낀 사람들이 청순 발랄의 콘셉트를 찾는 경향이 있는데 이 현상이 패션에도 나타나고 있다"며 "올 봄 판매가 집중되는 미니스커트, 쇼트 팬츠 등와 판매량에 비해 플랫슈즈, 스키니 팬츠 등 발랄함이 돋보이는 아이템의 판매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

기업들 "더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듭시다"

'지구의 날' 동참으로 이미지도 쇄신

매년 4월 22일 '지구의 날'은 환경 파괴와 자원 남비로 병들어가는 지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1970년 미국 상원의원과 한 하버드대생이 시작한 민간운동에서 출발했다. 지구의 날을 맞아 다양한 기업들이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자원에 노출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나서고 있다.

◆P&G, 10년간 70억 ℓ의 물 정화

P&G는 에이즈 등의 감염 질환보다 오염된 식수로 인한 병으로 목숨을 잃는 어린이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후 10년 이상의 연구 끝에 단 4g만으로 몇 분 내에 10 ℓ의 흙탕물을 깨끗한 식수로 정화시키는 분말형 제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 제품을 토대로 P&G는 '클린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함께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식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75여 개국에서 140개 단계와 협력해 3만9000명의 목숨을 살리고 70 ℓ의 물을 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P&G는 지구의 날을 맞아 소비자들이 SNS에서 해시태그 '#7billionliters'를 달고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 1 ℓ를 추가적으로 기부하는 참여형 소셜 미디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풀무원샘물, 1g 다이어트

풀무원샘물은 역시 최소 경량 PET병 개발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에 앞장서고 있다. 2009년 15g(500㎖ 기준)의 최소 경량 PET병 개발에 성공했으며, 작년에는 합작사인 네슬레 워터스에서 개발한 경량 포장을 통해 국내에서 가장 가벼운 12.1g(500㎖ 기준)의 PET병을 출시해 그 기록을 경신했다.

현재 풀무원샘물은 경량 포장의 PET병을 통해 업계 평균 대비 42%의 탄소 배출량을 절감하고 있다. 이런 친환경 패키지 생산은 연간 1777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한다. 이는 연간 약 64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것과 동일한 효과다. 또 풀무원샘물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생수병으로 소나무 심기'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디즈니, 영화 제작으로 환경보호

디즈니는 다큐 전문 제작사인 디즈니 네이처를 설립해 '지구(Earth)', '오션스(Oceans)', '아프리칸 캣츠(African Cats)' 등의 자연 다큐멘터리를 통해 자연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알리고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올해는 알래스카 카트마이 국립공원에서 서식하는 북극 불곰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베어스(Bears)'를 개봉할 예정이다.

디즈니 네이처는 제작하는 영화마다 개봉 첫 주에 걸리는 수익을 모두 야생동물 서식지 복원 및 보존을 위해 기부하고 있다. '지구' 첫 주 수익은 브라질 대서양림에 3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데 활용됐고, '오션스'의 경우 바하마 산호초 지역 4만 에이커를 보호하는 데 사용됐다.

◆구글, 사무실부터 시작되는 변화

글로벌 IT기업 구글은 친환경적 건축물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구글은 사무실을 시공할 때는 물론이고 사무실을 임대할 때도 미국의 그린빌딩인증제도인 LEED 인증을 받은 건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글 코리아 또한 그린 빌딩 인증을 목표로 전체적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기본적 건물 구조를 제외한 건물 인테리어 전반을 그린빌딩 기준에 맞는 것으로 바꿀 예정이다. 자연 채광을 활용한 조명, 친환경 소재의 직살과 의자 카펫·페인트·접착제 등이 도입되며 사무실 내 대부분의 전등을 에너지 절감형으로 교체하고 전력 남비를 방지하는 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장혜은 기자 hjune0404@metroseoul.co.kr

RFA 인증마크 단 '착한 제품들'

환경·인권 보호 동참 소비자 인식 확산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Sustainability)에 대한 패러다임이 급부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환경보호는 물론 타인의 삶과 자원의 영속성까지 고려한 가치 소비가 확산되고 있다.

이미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밸런타인데이에 아동 노예 노동이나 저개발국의 착취 없이 생산되는 공정무역 초콜릿을 특별 판매하기도 했다.

이처럼 가치소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새롭게 열대우림연맹(Rainforest Alliance, 이하 RFA) 인증 제품들도 주목을 모으고 있다.

청개구리가 새겨진 이 인증마크는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는 농장에서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는 노동자들이 키워낸 농작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환경과 인권 보호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다.

커피전문점 할리스커피는 최근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최초로 전 매장에서 RFA 인증 원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매장에서 에스프레소가 혼합된 음료 한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가치 소비에 직접 동참하는 것이다.

유니레버 코리아에서 판매하는 차 전문브랜드인 립톤에서도 RFA 인증마크를 만나볼 수 있다. 립톤 옐로우 라벨 홍차 티백은 RFA인증을 받은 찻잎으로 만들었다. 회사 측은 2015년 내에 전세계에서 판매되는 모든 립톤 옐로우 라벨 홍차 티백 제품에 RFA인증 마크를 적용하기로 했다.

RFA인증마크는 와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피노 누아(Pinot Noir) 와인은 미국 오리건주의 윌라멧 밸리 와이너리의 지속적인 친환경 활동으로 탄생했다.

이 와이너리는 와인을 생산할 때 사용하는 모든 장비에 콩기름 등의 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한 바이오 디젤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또 직원들이 바이오 디젤을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50갤런의 연료를 무상으로 제공해 생태계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세계적인 다국적 과일 전문 기업의 바나나 브랜드 '치키타'는 콜리진 현지에서 적정 임금을 받은 근로자들로부터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된 제품을 내놓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정영일 기자

유통업계 최초 보급형 UHD TV G마켓은 22일 자정부터 열리는 슈퍼딜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 최초의 UHD TV '스마트라 UHD-500A' 150여 대를 95만원에 100대 한정 판매한다. UHD(울트라HD) TV는 기존 HD 화질의 4배에 달하는 초 고화질로 차세대 TV로 주목 받고 있다. 대기업 브랜드의 경우 대부분 300만~400만원을 호가한다. 하지만 이 TV는 3분의 1 가격 수준이다. /G마켓 제공

강강술래, '영양전복갈비탕' 출시

8㎝ 최상급 활전복 통해 맛·영양 강화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고객들의 원기회복과 입맛을 돋우기 위한 전복갈비탕을 신 메뉴로 선보인다.

강강술래는 타우린 단백질 비타민이 풍부해 원기회복과 피로회복에 좋은 완도에서 공수한 8㎝짜리 최상급의 활전복을 넣은 특선메뉴 '영양전복갈비탕'을 전 매장에서 판매한다(유다 청담점 제외).

갈비탕 특유의 감칠맛과 구수한 맛에 쫄깃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는 보양 해산물이 더해져 깔끔하고 시원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온라인 쇼핑몰(sull atm.il.com)과 전화 주문(080-525-9292) 전 매장을 통해 야외 나들이나 캠핑 등에서 즐길 수 있는 가정간편식 30% 할인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국내산 돼지등심 부위를 통째로 넣은 통등심돈가스(720g×3팩 스)는 3만1500원, 자연치즈를 사용한 모짜렐라돈가스(720g×3박스)는 3만7800원에 할인 판매한다.

국산 돼지고기 70%에 흑임자를 첨가한 흑임자한돈너비아니(360g×3박스=2만5200원)와 100% 한우갈빗살로 만든 찹찹한우떡갈비(360g×3박스 4만2000원),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60g×6봉 2만5800원)도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

HACCP 인증시설에서 100% 한우로만 우려내 맛이 진하며 방부제·색소·조미료를 전혀 넣지 않은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세트(800㎖ 5팩=15인분)는 3만8800원, 소용량 세트(350㎖×5팩 10인분)는 2만2500원에 살 수 있다.

/정영일 기자

"치열함이 연기의 매력이죠"

연기파 배우 도전하는

배우 이민기(29)가 연기를 위해 기울이는 노력은 치열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일에 대한 일종의 집착처럼 느껴질 정도다. 연기자로 데뷔한 지 10년. 이민기는 지금 보다 더 나은 배우가 되기 위해 자신을 재무장하고 있다.

◆ 치열한 노력만이 살 길

'오직한 연애', '연애의 온도' 등 주로 로맨틱코미디 영화에서 잘생긴 외모와 로맨틱한 분위기로 여심을 사로잡은 이민기가 최근 변하고 있다. 지난달 개봉한 범죄스릴러물인 '몬스터'에서 연쇄살인마 태수로 변신한 것을 시작으로 연기에 계속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하반기 개봉 예정인 영화 '황제를 위하여'에서는 승부조작에 연루돼 밑바닥 세계에 몸을 담게 된 전직 야구 선수를 연기한다. 영화 '내 심장을 쏴라'에서는 가족들과의 유산 싸움 과정에서 강제로 정신병원에 갇히게 된 남자역을 맡았다.

"장르에 변화를 주고 싶다는 마음은 항상 있었어요. 태수 역을 맡을 때는 한번도 해본적 없는 역이라 망설이긴 했지만 결국 못 해낼 깜냥이라면 배우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나를 바꾸려고 치열하게 노력했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집중력을 발휘하려고 했어요."

이민기는 '몬스터' 촬영 당시 배역에 집중하려고 짧은 시간에 몸무게를 17kg 불렸다가 다시 빼는 혹독한 다이어트를 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한번은 숨이 갑자기 멎어 놀란 일도 있다. 연쇄살인마에 몰입하느라 예민해진 탓에 지금도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그렇게 노력해야 했느냐는 질문에 "배우는 핑계 대고 물러날 곳이 없는 직업"이라고 말했다. 결코 적당히 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집착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그런 치열함이 없다면 이 일은 하지 못한다"고 연기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 일상에선 또 다른 남자

일에는 열정적이지만 일상에서는 맛집 찾아 다니는 재미조차 모르는 남자다. 모델 출신으로 2004년 KBS2 드라마시티 '우리 집'에 출연하며 연기자로 데뷔한 이민기는 몇 년 전부터 일 외에는 큰 의미를 찾지 못한다고 했다.

"일상의 내게서도 의미를 찾고 싶지만 잘 안 돼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이 있어서 심심할 틈이 없었는데 이젠 다들 장가를 가서 만남이 시들해졌어요. 나도 미래를 생각하면 일에 매진해야 하는 때라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배우자라도 있으면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올해 한국 나이로 서른 살이 된 그는 "아쉬다기 너무 빨리 지나갔다. 운동하다가 tvN '꽃보다 할배'를 자주 보곤 하는데 문득 울컥해서 눈물을 흘리곤 한다"면서 "다행히 '몬스터' 촬영 후 단 걸 먹지 않던 식습관이 달라져 케이크 먹는 새로운 즐거움을 알게 됐다"고 웃으며 말했다.

대화를 나눌수록 화려한 외모와는 다르게 진중한 면모를 드러냈다. 배우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갖고 싶은 욕어나 물건이 많을 텐데도 욕심도 과거도 마음 속에서 덜어내고 최대한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 중이란다.

단 하나 욕심 내는 것은 연기다. "배우로서 가야할 길이 멀어요. 어떤 역을 맡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역을 하더라도 다른 느낌을 주는 내공을 갖고 있는 송강호선배가 부럽습니다."

/[illegible]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사진/[illegible]

제중 17kg 늘렸다 줄였다 숨이 '턱'

연기자는 핑계 통하지 않는 직업

송강호 선배 같은 내공 욕심난다

남상미·이준기 재회

배우 남상미(사진)가 KBS2 새 수목극 '조선 총잡이'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

21일 홍보사에 따르면 남상미는 '골든크로스' 후속으로 방송하는 '조선 총잡이'에서 총잡이 박윤강(이준기)을 마음에 품은 신여성 정수인 역을 맡았다.

남상미는 "조선시대 남녀의 규율과 법도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려는 강인한 캐릭터에 매력을 느꼈다"며 "이준기와 다시 한 번 만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07년 MBC 수목극 '개와 늑대의 시간'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공주의 남자' 역 김정민 감독이 연출하는 '조선 총잡이'는 이달 첫 촬영을 시작해 6월 방송될 예정이다. /탐희은기자 [illegible]

드라마 '의미심장'한 시작과 끝

'참 좋은 시절' '신의 선물 14일' 특색 있는 엔딩과 오프닝 눈길

드라마의 색다른 오프닝과 엔딩이 작품을 더 풍성하게 한다. 특색 있는 화면 구성으로 시청자 몰입을 높이거나 여운을 주고 있다.

KBS2 주말극 '참 좋은 시절'은 경주를 배경으로 한다. 본격적인 내용 전개 전 실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마음 전경을 사진에 담아 슬라이드 형식으로 미리 보여준다.

극이 시작하기 전 내용을 전달하는 프롤로그를 사진을 통해 대신하는 연출기법으로 따뜻하고 인간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극의 몰입을 높이고 했다.

이 드라마는 옛 정취가 가득한 경주 골목길과 돌담길, 기와지붕으로 이뤄진 건물을 통해 수채화 같은 영상미를 자랑한다. 가족을 중심으로 등장인물이 사랑을 찾고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을 그린 착한 드라마로도 평가되고 있다.

드라마 관계자는 "'참 좋은 시절'은 가족 드라마다. 시골도 도시도 아닌 한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며 "정겹고 따뜻한 드라마다운 오프닝 연출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SBS 월화극 '신의 선물-14일'의 엔딩은 동상 화면 정지로 극이 마무리되는 것과 달리 긴 호흡으로 카메라를 이동시키는 연출을 하고 있다.

움직이는 엔딩으로 인해 시청자는 끝까지 긴장감을 내려놓을 수 없으며 여운이 남아 다음 회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된다. 예고 영상을 따로 제작할 필요가 없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음산한 배경음악까지 삽입해 딸 유괴범을 찾는 주리극인 이 드라마는 스릴러 장르 특유의 무거운 분위기를 방송 마지막까지 이어간다.

앞서 차별화된 드라마 오프닝과 엔딩으로 화제가 된 작품은 전지현·김수현 주연의 SBS '별에서 온 그대'다. 본 내용에서 다루지 못하거나 감춰졌던 이야기를 배우들이 시청자에게 해주는 식의 에필로그로 큰 반응을 얻으켰다.

실제 김수현은 드라마 종영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도민준이 서재에서 혼자 이야기하는 장면을 좋아한다. 채마 못했던 말을 비밀스럽게 나누는 것 같았다"며 에필로그의 매력을 설명하기도 했다. /전효진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세월호 선정적 보도 제재 착수

방통심의위 MBC·JTBC·MBN에 '의견진술' 청취 결정 ·KBS·SBS는 22일 심의

KBS1 뉴스특보

MBC 이브닝뉴스

MBN 뉴스특보

JTBC 뉴스9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부적절한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MBC, JTBC, MBN 등에 대해 의견진술 청취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21일 방송소위원회(위원장 권혁부) 임시회의를 열고 세월호 침몰 관련 방송사의 선정적인 보도 4건을 심의했으나 위원들 간의 의견 불일치로 방송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

의견진술은 과징금 및 관계자 징계 등의 법정제재를 내리거나 위원 간 논란이 있을 경우 해당 방송 관계자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는 절차다.

MBC는 지난 16일 '이브닝뉴스'에서 단원고교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관해 보도했다. 실종자 수색작업 중에 보험금을 언급한 MBC 보도에 일반적인 정서와 상식에 어긋난다는 제보가 들어와 심의 대상이 됐다.

방송소위는 심의규정 제24조의4의 4호 항목 중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수정 또는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과 제27조 1항 '방송은 시청자의 윤리적 정서적 감정을 존중하기 위해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규정으로 논의했지만 여야 위원 간 의견이 엇갈려 의견진술을 청취 후 제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JTBC도 같은 날 오후 2시께 세월호 침몰 뉴스 특보를 보도하던 중 한 앵커가 전화 인터뷰에서 한 단원고 학생에게 친구의 사망에 대해 언급,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오후 9시 손석희 앵커가 직접 사과했지만 방통심의위에 제보가 돼 심의 대상이 됐다.

심의규정 제24조의3에서 '재난방송은 피해 현장, 복구상황,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모습 등을 지나치게 선정적인 영상, 음향 또는 언어 등으로 강조함으로써 시청자,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불필요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위배됐다는 판단이다.

이담 추천 위원은 생방송 특성과 함께 사장의 사과로 볼 때 정상 참작에 행정제재 수준의 제재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혁부 방송소위원장은 "정상참작 사유는 있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일단 의견진술을 청취하자"고 결론을 내렸다.

방송소위는 또 JTBC가 '뉴스9'의 인터뷰에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물 속의 엘레베이터 '다이빙 벨'이 투입됐으면 수색이 쉬워졌을 것"이라는 발언과 관련해 제24조2(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의 제2항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MBN은 지난 18일 '뉴스특보'에서 자신을 민간잠수부라고 속이고 인터뷰한 홍가혜 씨의 발언을 방송에 내보낸 것이 문제가 됐다. 홍 씨의 발언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 방송심의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4조2 제2항에 위배돼 이견 없이 '의견진술'로 결정, 법정제재를 받을 확률이 높다. 방송소위원회는 이르면 23일 전체회의 때 최종 제재를 정할 예정이다.

방송소위는 22일 오전 10시 임시 소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침몰 뉴스 보도 중 기자의 웃는 모습이 전파를 탄 SBS와 '선내 엉켜 있는 시신 다수 확인'이라는 오보를 내보낸 KBS1에 대해서도 심의할 예정이다. /김지연기자 [illegible]

2NE1 美 패션지 메인 장식

걸그룹 2NE1(사진)이 미국 패션 매거진 나일론 편집장에게 가장 독창적인 뮤지션으로 인정받았다.

2NE1은 최근 나일론 5월호의 화보 촬영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2NE1은 정규 2집을 발표하고 연일 이어지는 음악 방송 스케줄을 소화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중 나일론의 러브콜을 받았다.

이번 화보는 나일론 편집장 겸 포토그래퍼 미빈 스콧 자렛이 가장 독창적이고 흥미로운 뮤지션으로 2NE1을 지목하면서 성사됐다.

나일론 관계자는 "2NE1은 이번 화보 촬영에서도 노래하고 춤추듯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탐희은기자

연예계 휴업 장기화 조짐

봄 대표 음악 축제 '월디페' '그린플러그드' 연기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지 7일째. 애도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연예계의 휴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고 발생일인 16일부터 방송사 대부분이 연예 오락 프로그램 방송을 올스톱 한 가운데 녹화는 물론 축제·콘서트 등 각종 행사도 연이어 취소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매년 봄마다 국내 외 유명 아티스트를 초청해 열리는 대규모 음악 축제의 연기다.

이번 사고로 다음달 3~4일 이틀간 서울 난지 한강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그린플러그드 서울 2014'는 약 한 달 정도 늦춰진 다음달 31일부터 6월 1일로 연기됐다. 주최 측은 지난 19일 "많은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모든 사람의 슬픔 속에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출연진 대부분 이번 결정에 기꺼이 동참해줘 공연 라인업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달 4~6일 경기도 양평 강상체육공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월드디제이페스티벌'은 아예 이듬인 8월로 늦춰졌다. 주최 측은 "1년을 준비해온 페스티벌의 일정을 두고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면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진 가운데 즐겁게 페스티벌을 강행할 때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향후 확정 일정과 최종 라인업에 대한 공지는 한 달 안에 조속히 결정해 전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적·이문세·이승철 등이 콘서트를 연기한 데 이어 남성 듀오 투빅도 26·27일로 예정돼 있던 단독 콘서트 '빅쇼 언플러그드'를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투빅의 소속사 넥스타엔터테인먼트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온 국민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일정은 향후 조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사 취소가 어려운 경우는 규모를 축소해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달 1~10일 개최될 제15회 전주국제영화제는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전망이다. 영화제 관계자에 따르면 1일 개막식을 애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레드카펫 포토행사 등은 취소 또는 축소로 가닥을 잡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능 프로그램 녹화 취소도 잇따르고 있다. 17일 MBC '무한도전'의 정규 녹화가 무산된데 이어 배우 이지아의 SBS '힐링캠프' 녹화도 취소됐다. 이지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 측은 21일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던 녹화 일정을 취소했다"며 "인터뷰 일정도 모두 취소하며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애도 행렬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지민기자 language@metroseoul.co.kr

제15회 전주국제영화제

월드 디제이페스티벌

그린플러그드 서울 2014

'저 하늘에도 슬픔이' 찾았다

대만에서 발견 다음 달 일반인에 공개

필름이 유실된 것으로 알려졌던 1960년대 히트 영화 '저 하늘에도 슬픔이'(큰 사진)가 발견돼 영화팬들이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한국영상자료원은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KOFA에서 언론 기자회견에서 김수용 감독(작은 사진)의 '저 하늘에도 슬픔이'를 대만에서 발견해 복원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영화는 이달 김수용 감독과 출연배우 등 영화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시사회를 통해 공개됐다.

신영균 조미령 황정순 등 당대 스타들이 총출동한 '저 하늘에도 슬픔이'는 1965년 국제극장에서 개봉해 서울에서만 28만 5000명을 동원한 히트작이다. 신상옥 감독의 '성춘향'(1961년·38만 명)에 이어 당시 역대 흥행 순위 2위에 올랐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쓴 수기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이후 수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 잇달아 제작됐으며 세 차례에 걸쳐 리메이크됐을 정도로 한국영화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다.

한국영상자료원이 대만영상자료원에 보관돼 중국영화로 분류돼 있던 '수상존초심'이 '저 하늘에도 슬픔이'와 같다는 제보를 받고 영화를 찾아냈다.

이에 따라 3월 대만영상자료원으로부터 필름을 빌려 보존용 프린트(필름)를 제작하고, 영상 및 음향 복원작업을 거쳐 작품을 디지털 시네마(DCP)로 만들었다.

영상자료원은 다음 달 열리는 '한국영상자료원 창립 40주년 기념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준현기자

'청순 섹시' 임지연 VS '엘리트 변신' 조여정

파격멜로 '인간중독'서 상반된 매력 발산

영화 '인간중독'에 출연하는 임지연(왼쪽 사진)과 조여정(오른쪽)이 서로 상반된 매력으로 남성 관객들의 마음을 흔든다.

'인간중독'은 베트남전이 막바지로 치닫아 가던 1969년, 엄격한 위계질서와 상하관계로 맺어진 군 관사 안에서 벌어지는 남녀의 비밀스럽고 파격적인 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극중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한 여인 종가흔 역으로 데뷔를 앞둔 임지연은 극중에서 남편의 상사인 김진평(송승헌) 대령을 첫눈에 사로잡는 엄청난 매력의 소유자인 만큼 독보적인 스타일을 선보인다.

순백의 간호사복에서 강렬한 붉은 드레스까지 매 장면마다 다양한 의상을 보여준다. 1969년의 멋이 물씬 풍기면서도 모던한 의상들은 종가흔 스타일 유행을 예고하며 여성 관객들까지 사로잡을 전망이다. 검고 긴 머리와 하얀 얼굴, 때때로 우수에 잠긴 표정은 청순하면서도 도도하고 섹시한 분위기를 풍긴다. 뿐만 아니라 임지연은 신예답지 않은 대담함으로 파격적인 노출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남편 진평을 장군으로 만들려는 야망을 가진 숙진으로 분한 조여정의 새로운 변신도 눈길을 끈다.

'인간중독'을 연출한 김대우 감독의 '방자전' 등 전작들에서 주로 섹시한 이미지로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재치 있고 사랑스러운 모습부터 외모·두뇌·재력 등 모든 것이 완벽한 엘리트 여성의 카리스마까지 보여준다.

또 1969년 최상류층의 대표로서 그 당시 가장 세련된 스타일을 자랑한다. 복고풍의 헤어 스타일, 이지적인 안경, 화려한 액세서리, 과감한 프린트가 돋보이는 원피스 등은 캐릭터에 보다 생동감을 불어넣어 보는 재미까지 선사한다.

영화는 다음달 15일 개봉 예정이다. /박준현기자 cultur@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

극장가 애도 속 관객 발길 '뚝'

주말 관객수 전주에 비해 30%까지 급감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로 극장가에 관객의 발길이 뜸해졌다.

21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18~20일 주말 3일간 극장을 찾은 관객은 102만 2978명으로 집계됐다. 한 주 전인 11~13일 관객 143만 8611명과 비교하면 약 30% 줄어들었다.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가 이번 주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지만 전 주 47만 751명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24만 2937명을 모으는 데 그쳤다. '방황하는 칼날'도 관객이 36만 3327명에서 18만 9501명으로 절반 가량 줄었다.

한 주 만에 관객수가 30%나 급감한 것은 이례적이다. 봄 나들이와 학생들의 중간고사가 있는 비수기인 데다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로 애도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30일 현빈 주연의 '역린'과 류승룡 주연의 '표적'이 동시에 개봉해 관객수가 어느 정도 다시 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작품 마저 애도 분위기에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에 어려워 극장가 침체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박준현기자

NC·SK 올시즌 첫 맞대결

22일부터 문학구장… 창과 방패의 싸움

2014프로야구 시즌 초반 가장 뜨거운 두 팀이 만난다.

다크호스 NC 다이노스와 부활을 노리는 SK 와이번스가 22일부터 SK의 안방인 인천 문학구장에서 3연전을 치른다. 올 시즌 처음 맞붙는 경기다.

나란히 17경기를 소화한 두 팀은 11승 6패로 공동 2위를 달리고 있다. 선두 넥센 히어로즈(11승5패)와는 0.5경기 차이다.

일찌감치 다크호스로 주목을 받았던 NC는 시즌 초반부터 그 위용을 유감없이 뽐내고 있다. NC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역시 마운드다. NC는 9개 구단 중 유일하게 3점대(3.94) 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다.

NC는 지난해 신인선수상 수상자인 토종 에이스 이재학과 외국인 3인방인 찰리 쉬럭, 에릭 해커, 테드 웨버 등으로 선발진을 안정적으로 꾸려가고 있다. 여기에 이민호가 19일 삼성전에서 데뷔 첫 선발 등판해 승리투수가 되면서 NC는 상승세에 날개를 달았다.

약점으로 지적됐던 중간 투수들의 선전도 고무적이다. 베테랑 손민한이 9경기에 나서 평균자책점 2.16의 짠물 피칭을 이어가고 있고 원종현(8경기 1승 평균자책점 3.00)과 손정욱(9경기 평균자책점 1.80), 홍성용(6경기 무실점)도 제 몫 이상을 해주고 있다.

중간이 두꺼워지면서 뒷심도 강해졌다. NC는 올 시즌 4차례의 연장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했다. 1점 차 승부에서도 5승2패로 7할 승률이 넘는다.

SK는 날선 방망이의 이점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루크 스캇이 타율 0.306 홈런 4개로 중심을 지탱하는 가운데 박정권(타율 0.306 3홈런)과 김성현(타율 0.326) 등이 방타를 휘두르고 있다. 잠잠하던 최정(0.292)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탄탄한 마운드를 갖추고 있는 NC와 갈수록 견고해지고 있는 SK의 맞대결에 야구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성훈기자

NC 다이노스

SK 와이번스

류현진 필라델피아전 4승 도전

23일 '홈경기'… 강타자 어틀리와 재대결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7·LA 다저스·사진)의 시즌 여섯 번째 선발 등판 일정이 확정됐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엠엘비닷컴은 21일 경기 종료 후 LA 다저스의 향후 선발 투수 등판 일정을 게재했다. 엠엘비닷컴의 발표에 따르면 류현진은 23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전에 선발 등판할 전망이다. 맞대결을 펼칠 투수는 A.J. 버넷(37)이다.

버넷은 메이저리그 16년차의 베테랑 투수로 지난해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서 10승 11패 평균자책점 3.30을 기록했다. 노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50km대 중반의 강속구를 던지며 너클 커브는 메이저리그 최정상급 구질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맞서는 류현진은 이번 시즌 5번의 선발 등판에서 3승 1패 평균자책점 1.93을 기록하며 클레이튼 커쇼(26)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우고 있다.

비록 한차례의 홈경기에서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선발 등판에서는 이를 만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류현진은 필라델피아전에 한 차례 선발 등판해 7이닝 7피안타 2실점을 기록했고, 승패는 없었다.

그러나 당시 류현진은 체이스 어틀리에게 연타석 홈런을 내줬다. 올해 28이닝 동안 단 한 개의 홈런도 허용하지 않은 류현진과 어틀리의 재대결은 이날 경기의 관전 포인트다.

어틀리는 20일까지 15경기 타율 0.417, 3홈런, 10타점을 올리고 있다. /장병호기자 yaw@metroseoul.co.kr

'손세이셔널' 손흥민 시즌 4번째 도움

현지 언론 호평 이어져… 평점 2점 부여

올 시즌 4번째 도움을 기록한 '손세이셔널' 손흥민(22·레버쿠젠·사진)이 독일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독일 일간지 빌트는 21일 인터넷판에 발표한 2013-2014 분데스리가 31라운드 뉘른베르크-레버쿠젠의 경기 평점에서 손흥민에게 평점 2를 부여했다.

빌트의 평점은 1~6점으로 매겨지는데, 1이 가장 높은 점수다.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후반 35분 에미르 스파히치가 터뜨린 팀의 세 번째 골을 어시스트해 분데스리가 시즌 4호 도움을 쌓았다.

지난 13일 헤르타 베를린과의 경기에 이어 2경기 연속 도움이다.

레버쿠젠은 강등권에 놓인 뉘른베르크와 전반에 1-1로 비겼으나 후반에 3골을 퍼부으며 4-1로 대승했다. 두 골을 터뜨린 스파히치가 양 팀을 통틀어 유일하게 평점 1을 받았으며, 손흥민과 외메르 토프락이 두 번째로 높은 2점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골닷컴 독일판의 평점에서도 3.5점(5점 만점)을 받아 스파히치(4.00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성훈기자

메시 부활로 팀 3연패 탈출

바르셀로나 현재 2위… 리그 우승 노린다

골잡이 리오넬 메시(27·사진)의 부활로 바르셀로나가 리그 우승 전망을 밝게 했다.

바르셀로나는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13-2014 프리메라리가 34라운드 아틀레틱 빌바오와 홈경기서 2-1로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26승 3무 5패(승점 81)를 기록한 바르셀로나는 한 경기를 덜 치른 레알 마드리드(승점 79)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선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승점 85)와 승점 차는 4점이다.

가장 반가운 소식은 메시의 부활이다. 메시는 후반 29분 짜릿한 프리킥으로 결승골을 꽂아 넣었다. 최근 메시는 중요한 경기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 바르셀로나는 10일 2013-2014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8강 2차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0-1로 패하면서 7년 만에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에 실패했다. 또 17일에도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와의 2013-2014 코파 델 레이 결승전에서 1-2로 패하며 우승을 내줬다. 메시의 부진은 바르셀로나 전체의 침체로 이어졌다.

이제 바르셀로나는 프리메라리가 우승만 남겨두고 있지만 자력 우승은 힘들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남은 발렌시아, 레반테, 말라가를 모두 이기면 승점 94점이 된다. 바르셀로나는 비야레알, 헤타페, 엘체를 모두 이겨도 승점 90점이 된다. 이 때 바르셀로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이기더라도 역전 우승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한 경기라도 비기고, 바르셀로나가 전승을 한다면 역전 우승이 가능하다.

바르셀로나가 극적인 역전으로 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을지 축구 팬들의 관심은 메시의 발끝에 집중되고 있다. /정성훈기자

암보험 없는 61~80세를 위한
100세 보장
암보험!